

석사학위논문

중동 및 동북아 지역 테러리즘에 관한 연구

-이슬람과 북한을 중심으로-



2012년

HANSUNG
UNIVERSITY

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안보전략학과

국제안보전공

윤진규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이태운

중동 및 동북아 지역 테러리즘에 관한 연구

-이슬람과 북한을 중심으로-

A Study on Terrorism in the Middle East and the
Northeast Asia

-Focused on cases of Islam and the North Korea-

2012년 6월 일

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안보전략학과

국제안보전공

윤진규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이태운

중동 및 동북아 지역 테러리즘에 관한 연구

-이슬람과 북한을 중심으로-

A Study on Terrorism in the Middle East and the
Northeast Asia

-Focused on cases of Islam and the North Korea-

위 논문을 국제안보전략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6월 일

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안보전략학과

국 제 안 보 전 공

윤 진 규

윤진규의 국제안보전략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2년 6월 일



심사위원장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국 문 초 록

중동 및 동북아 지역 테러리즘에 관한 연구 -이슬람과 북한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안보전략학과
국제안보전공
윤진규

본 논문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두각이 되고 있는 테러리즘 배경 및 강대국의 대테러 정책 분석을 토대로 한국의 대테러 정책의 발전방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다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테러리즘의 국제 정치학적 측면에서 테러리즘의 본질적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국제 테러리즘의, 초국가적 테러리즘의 정의를 살펴본다.

둘째, 9·11 테러 배후인 이슬람 및 중동지역에 대해 관심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중동지역 테러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 특성을 연구함으로써 향후 이슬람테러의 전망이다.

셋째, 한국의 가장 큰 위협은 2010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처럼 북한이다. 북한의 위협 수단 및 종류를 살펴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를 강대국의 대테러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대응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문제에 대한 전개과정은 테러리즘의 일반적인 개념과 발생원인을 규명하고, 중동 및 동북아 지역의 테러 양상을 분석한다. 이러한 테러 양상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강대국의 대테러정책을 분석함으로써, 우리의 테러리즘 대응실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테러 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테러에 대응하는 위기관리 체제를 제도화하여야 한다. 테러위기를 인식-평가-대안개발-선택-집행-평가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인원, 장비, 조직 등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은 테러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외교적 대응에 그쳐 왔으나 최근 국제적 안보 환경이 테러에 집중, 탈 냉전이전의 정치 및 군사적 부문 위주의 전통적 안보개념에서 탈피하여 비정치적, 비군사적 부문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개념으로 변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으므로 과거의 소극적인 대처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로, 테러에 대한 조직적인 연구와 전문가의 양성이 시급하다. 한국적 상황을 적합하게 구성하여 교리화하고 또한 연구된 교리를 이론과 연결시켜 논리화, 계열화시켜야 한다. 또한 재래식 정규전 개념이 아닌 각군의 특성에 맞는 테러대응 전술을 개발하고 테러에는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즉 테러에 즉각 대처하거나 해결책을 계획하고 협상과 구출작전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문요원을 양성해야 한다.

셋째로,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적, 국민적 협력의 기반구축이 필요하다. 전후방이 따로 없는 현대전의 특성상 테러와 같은 위기가 발생시 군만으로는 성공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없다. 책임지역 내 모든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평소에도 상황조치 훈련을 강화하고 장래의 불특정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안보관 정립과 함께 민관군의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여야 한다.

넷째로, 기술의 발달로 인한 테러의 수단, 무기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장비르 확보하여야 한다. 9·11테러 후 미국을 공포로 몰아 넣은 탄저균과 같은 생물을 대비하기 위한 장비가 필요하다. 또한 국제협력의 증진을 통한 정보의 공유이다. 각국과 대테러 공조를 체결함으로써 범국가적인 테러에 대비할 수 있다.

【주요어】 테러리즘, 대테러 정책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문제의 제기	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제 2 장 테러리즘에 관한 이론적 고찰	4
제 1 절 테러리즘의 정의와 개념화	4
1. 테러리즘의 정의 및 개념	4
2. 테러리즘의 목적과 유형	6
제 2 절 테러리즘의 역사와 사상적 배경	9
1. 테러리즘의 역사·사상적 배경	9
2. 테러리즘과 폭력 이론	10
제 3 절 현대 테러리즘의 발생원인 및 실태	16
1. 테러리즘 발생원인	16
2. 테러리즘의 실태와 변화(1980년 이후)	20
제 3 장 중동 및 동북아 지역 테러 양상과 현상 분석	25
제 1 절 중동지역에서의 테러 양상과 특징	25
1. 중동지역 테러의 역사적 변천	25
2. 중동지역 테러의 특징	27
제 2 절 이슬람 테러 환경과 양상 전망	31
1. 이슬람 문화와 테러 환경	31
2. 이슬람원리주의의 특성	33
3. 이슬람테러 조직의 종류와 양상 전망	36

제 3 절	북한 테러의 양상과 실태 고찰	41
1.	국가지원 테러리즘과 전략	41
2.	예상되는 북한의 테러 유형	43
3.	북한 테러리즘의 특성	50
4.	북한 테러리즘의 조직 및 기구	52
제 4 장	동북아 지역 및 한국의 대테러 정책 발전방향	56
제 1 절	강대국의 대테러 정책	56
1.	미국의 대테러 정책	56
2.	중국의 대테러 정책	59
3.	일본의 대테러 정책	60
4.	러시아의 대테러 정책	61
제 2 절	한국의 대테러 발전 방향	62
1.	한국의 대테러리즘 환경 분석	62
2.	한국의 대테러 정책현황과 문제점	67
3.	한국의 대테러 발전방안	70
제 5 장	결 론	81
【참고문헌】		84
ABSTRACT		89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의 제기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시의 무역센터와 워싱턴DC의 펜타곤에 대한 항공기의 자폭테러는 전 세계를 경악하게 하였으며 테러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21세기 세계 최강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지닌 미국에 감히 대항하려는 국가나 단체가 없는 현실에서 그다지 큰 비용과 노력(4대의 여객기를 납치한 19명의 결사대가 세계 제2차 대전 당시 일본의 해군기 360대에 의한 미군주둔 진주만 공격의 성과를 훨씬 능가하는 엄청난 파괴력을 발휘하였음)을 들이지 않고 미국의 심장부인 워싱턴 DC와 뉴욕을 강타한 그 사실만으로도 전 세계를 충격 속에 휩싸이게 하는 데는 충분하였다. 최단 시간 내에 최대 피해를 낳은 전쟁급 테러 공격이었다. 그 때문에 21세기형 새로운 위협이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오늘날 국제 사회는 두 가지의 양면성 속에서 상호 이질적인 현상을 수용해야만 하는 시대에 와 있다. 과학문명의 발달로 인한 교통수단은 점차 빠르게 변모하여 지구촌 전체가 일일 생활권에 놓이게 되었으며 상호 교류를 통한 무역의 증대는 생활의 질을 점차 좋은 쪽으로 개선시켜 나가고 있다. 선의의 경쟁과 공정한 게임을 통해 국가 간의 장벽을 허물려는 노력은 지구촌을 적이 아닌 이웃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인 것이며 이러한 노력은 유럽사회의 유로화 통폐합과 같은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적대적인 행위가 국제사회에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9·11테러의 결과로 빚어진 아프간 전쟁의 발발은 탈냉전기의 새로운 안보위협 요소로 크게 부각되고 있다. 뚜렷한 동기나 목적 없는 테러는 21세기 들어 대다수 지구촌 사람들을 공포와 근심에 떨게 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의 테러는 인류전체가 그 피해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피해 당사국은 물론이고 그와 관련된 국제사회의 인적, 물적, 심리적 손실 등 산업과 경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고 있다.

위와 같은 국제 안보환경의 격변 속에서 한반도의 안보적 여건 또한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으로 남북한 관계의 해빙과 군사적 긴장완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던 한국 국민은 지금 매우 무거운 심정을 가지고 있다. 남한은 누가 보아도 좋을 전략을 가지고 북한에 대한 선의를 보이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으리란 희망을 가졌었다. 그러나 북한을 변화시키기도 힘들고, 북한의 가시적 변화 없이는 좋은 전략과 호의를 가지고 있기도 힘들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아울러 비단 남북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9·11 테러의 여파로 미국은 세계적 규모의 대테러 전쟁을 추진하고 있다. 그 대테러 전쟁의 목표가 대량 살상무기를 보유하거나, 개발 중인 국가로서, 이라크와 북한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탐구하고자하는 연구의 중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테러리즘에 관한 연구는 역사가 짧지 않은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연구의 경향과 논의의 대부분이 심리학, 범죄학, 법적 측면에서 테러리즘을 다룬 테러의 법적 규제, 항공기 테러의 방지와 대책, 대테러 수립 등 정책적·행정적 문제점과 테러범죄자들의 개별적 특성과 원인에 중점을 두고 연구되어 국제 정치학적 측면에서 테러리즘의 본질적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국제 테러리즘의, 초국가적 테러리즘의 정의를 살펴본다.

둘째, 9·11 테러이후 전 세계적으로 테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9·11 테러 배후인 이슬람 및 중동지역에 대해 관심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중동지역 테러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 특성을 연구함으로써 향후 이슬람테러가 어떻게 전망이 되는지 살펴본다.

셋째, 남북은 휴전이후 화해 및 대립을 이어져 왔으며, 현재 한국의 가장 큰 위협은 2010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처럼 항상 북한이다. 북한의 위협 수단 및 종류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를 강대국의 대테러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대응 방안이 무엇에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제 2 절 연구범위 및 방법

테러리즘에 관한 여구는 문제영역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전개 될 수 있으며 한 때 게릴라전의 한 형태로 다루어지던 테러리즘의 연구가 많은 학자들에게 새로운 영역의 연구대상으로 부각된 지도 오래지 않아 그 연구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¹⁾.

본 논문에서는 테러리즘의 현상이 개인의 차원을 벗어나 탈국가적 성격을 갖는 국제사회의 새로운 전쟁양상이라는 관점에서, 테러리즘의 개념정의, 역사적·이념적 배경과 폭력이론, 중동 및 이슬람의 테러 발생원인, 역사적 배경 및 양상, 북한의 테러에 대해서 연구 범위로 설정하였다. 특히, 남북 분단이후 현재 한국을 대상을 테러를 가했고, 앞으로 가장 위협인 북한을 테러 사례 및 특성을 살펴보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기존에 연구된 테러리즘의 일반적 정의 및 개념을 살펴보고 이러한 테러가 가지는 목적과 유형을 알아본다. 테러리즘이 발생한 역사적·이념적 배경을 살펴보고 과농, 마리켈라 등 기존의 폭력이론을 살펴봄으로서 테러리즘의 발생 원인을 연구하였다.

제 3장에서는 9·11테러 이후 테러에 대한 관심이 증대가 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인 중동 및 이슬람테러의 역사적 변천 및 특징을 살펴보고, 이러한 테러 조직들이 어떠한 것이 있으며, 향후 양상 전망에 대해 연구했다. 또한, 2010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 분단 이후 끊임없이 한국에 가장 위협을 가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살펴보았다. 즉, 북한의 테러 사례 및 유형을 분석하여 그 특성을 연구하였다.

제 4장에서는 3장에서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주변국의 대테러 정책을 바탕으로 한국의 대테러 문제점 및 발전 방향을 연구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로 문헌조사 및 통계자료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모든 자료는 공개된 것을 중심으로 활용하였다.

1) 국제테러리즘을 어떤 시각에서 조명할 것인가의 이론적 문제제기에 대하여 Schmid 는 4가지의 시각으로 분석하고 있다. 1) ‘공식적’시각은 주로 정보통계자료에 의존하여 정부의 공식적 입장을 반영하며, 2) ‘저항적’시각은 테러 행위자의입장에서 문제를 본다. 3) ‘대중적’시각은 상업적 매스 매디어 등에서 테러리즘을 접근하며, 4) ‘대안적’시각은 공식적 견해로부터 거리를 유지하면서 저항적 시각에 빠지지 않는 접근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제 2 장 테러리즘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 1 절 테러리즘의 정의와 개념화

1. 테러리즘의 정의 및 개념

민간인에 대한 테러행위와 국제적 조직에 의한 테러활동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지만, 국내·국제적으로 큰 관심과 논란거리가 되었던 것은 9·11 테러 이후의 일이다.

테러(terror)라는 용어는 원래 라틴어 “terrere”에서 기원하는 것으로, “공포”, “공포조성”, 또는 “죽음의 심리적 상태”를 의미한다.²⁾ 이와 같은 테러라는 용어와 개념은 1789년 프랑스혁명과 자코뱅당의 테러시대(1793-1794)에서부터 사용되었다. 프랑스혁명 당시 혁명정부의 주역이었던 당통(G.J. Danton), 로베스피에르(M.F. I de Robespierre) 등이 공화파 집권정부의 혁명과업 수행을 위하여 왕권복귀를 꾀하던 왕당파를 무자비하게 암살, 고문, 처형하는 등 공포정치를 자행하였던 역사에서 유래한다. 즉, 단순한 개인적인 암살이라든지 사적 단체에 의한 파괴 등이 아니고, 권력 자체에 의한 철저한 강력지배, 또는 혁명단체에 의한 대규모의 반혁명에 대한 금지와 억압을 일컫는 것이다.

국제테러(international terror)는 국내테러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테러 범죄인과 공범자의 국적, 희생자의 국적, 테러행위의 준비 또는 수행의 영역 또는 그 효과가 나타난 영역의 소속국과 범죄인이 도망한 영역국 중 적어도 그 하나가 타국으로서 국가가 서로 다른 경우를 말한다. 국제법상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국제테러이다.³⁾

2) 일반적 의미의 terror라는 용어는 ‘커다란 공포’ 또는 ‘죽음의 심리적 상태’(psychic state of great fear or dead)라는 뜻으로 라틴어의 ‘terree’ 어원을 두고 있으며 테러가 인간의 ‘주관적 경험’이며 ‘마음의 상태(a state of mind)’ 또는 ‘심리적 효과’를 의미하는데 반하여 테러리즘은 조직적인 사회활동(organized social activity)의 일환으로 고려되고 있으며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어 폭력,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테러를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테러는 테러리즘 없이도 발생 가능하며 테러리즘의 중요한 한 요소가 된다.

한편, 테러리즘(terrorism)은 사안에 다양한 측면을 가지는 사회현상이다. 다시 말해서 테러리즘은 사회현상으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폭력행위’로 보지 않고 그러한 극도의 공포조성을 통하여 특정 집단이 소기의 목적, 특히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행동현상이다.

그런데, 9·11 테러 직후인 2001년 9월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68에서 “9월 11일 뉴욕, 워싱턴 D.C.와 펜실베이니아에서 발생한 테러공격(terrorist attacks)을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하면서, 그와 같은 행위들을 다른 어떠한 국제테러리즘의 행동(any act of international terrorism)과 같이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한다.”라고 선언하여 테러리스트의 공격과 국제테러리즘의 행위를 구분하여 사용하다. 1977년 제1추가 의정서 제51조 제2항은 “민간개인은 물론 민간주민도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민간주민 사이에 테러를 만연시킴을 주목적으로 하는 폭력행위 및 위협은 금지된다.”고 규정하여 테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⁴⁾

그러나 테러와 테러리즘 그리고 테러행위는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새로운 위협이라는 측면에서는 거의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하에서의 테러행위, 테러, 테러리즘은 대테러전쟁과 관련하여 테러리스트의 국적국이 아닌 제3국 군대, 예를 들어 점령군 또는 PKO 부대원 또는 국적에 상관없이 비 군사목표물인 민간인에 대하여 통상적 의미의 재래식 공격이 아닌 급조폭발물(IED)⁵⁾이나 자살공격과 같은 새로운 전쟁양상의 무기를 사용한 공격을 가하는 국제테러리즘을 말하는 것으로 한다.

3) 김응수(2012), 『글로벌 테러리즘』, 서울 : 한울, pp.84-87

4) 이태윤(2004), 『21세기 국제테러리즘』, 서울 : 도서출판 모시는 사람들, pp.11-17.

5) IED(Improvised Explosive Device)는 ‘급조폭발물’로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화약약품, 전쟁 유기탄, 첩단장치 등을 이용해 필요시 사용하도록 만든 폭발물과 장치를 말한다. 제조비용이 저렴하고, 재료 조달과 설치가 용이하면서도 심대한 피해효과를 달성할 수 있어서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 이라크 전쟁에서 급조폭발물에 의한 미군 사망자는 총사망자 대비 급증하고 있다. 미군의 2003년 총사망자 486명 중 급조폭발물에 의한 사망자 68명(14%), 2004년 총사망자 848명 중 급조폭발물에 의한 사망자 197명(23%), 2005년과 2006년 각각 48%, 49%로 증가하였다

2. 테러리즘의 목적과 유형

1) 테러리즘의 목적

미국에 대한 9·11항공테러나 러시아의 모스크바 극장 인질테러 등 모든 테러에는 반드시 그 목적이 있다. 테러리스트 조직은 대체로 그 수가 적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문제를 대표적으로 반영했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러한 현상을 역사적 우연이나 정치적 유행으로 볼 수만도 없다. 일반론적인 차원에서 테러의 목적은 다음의 네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⁶⁾

(1) 사회혁명 테러

1960년대 후반 ‘신좌파’의 정신적 환경 속에서 등장한 사회 혁명적 테러 집단은 각국의 정부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국가의 법질서 전체를 시험대에 올려놓았다. 그들의 공격과 파괴 시도는 특히 선진공업국에서의 소유 및 지배관계를 변혁시키는데 있으며 기대와 실익간의 괴리에 대한 박탈감 이론⁷⁾에서 비롯된다고도 한다. 현재는 라틴아메리카에서만 마르크스주의를 신봉하는 테러 분자들의 일부만 남아 있을 뿐이다.

(2) 민족주의 테러

종족적인 민족 간의 갈등에서 생기는 폭력 발생을 말하는 것으로, 인종 및 지역 집단들 간의 동질 의식이 강화되고 이에 따른 기대의 불균형 및 이해관계를 해결하는 가장 손쉽고 극적인 방법이 폭력사용이란 인식과 연결되어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은 동남아시아의 회교권,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등지의 문제이고, 또 다른 예는 아프리카의 흑·백 갈등

6) 이원창(2003), 『한국의 테러대비 방향』, 『합참 제20호』, 서울 : 합참, pp.139-140.

7)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배에서 벗어나 독립한 신생국들이 정치적 독립과 근대화의 과정에서 급격한 정치, 사회, 경제적 변화를 겪으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 즉 기대치와 현실 사이의 불일치에서 야기되는 유형이다. 이러한 유형은 근대화에 박차를 가하는 개발도상국에서 흔히 발생한다.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이상적 삶의 재조건과 실제로 그가 향유하는 현실적 조건간의 격차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에서 발생되기도 하며, 팔레스타인 문제도 여기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

개혁과 개방의 결과로 해체된 구소련의 대체국인 독립국가 연합 내의 국가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독립시위나 민족 간의 충돌도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근대화에도 불구하고 지역주의와 소수 집단 문제는 여전히 폭발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세력의 비중이 커지게 된 까닭은 특히 정치적 동원과 조직화를 위하여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3) 종교 테러

지난 10~20년 동안에는 특히 근본주의 경향에서 출발한 종교적 테러리즘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일본에서는 1995년 옴진리교가 도쿄의 지하철 역 내에다 사린가스를 살포하여 이 사건으로 12명이 죽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았다.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종교적 테러리스트는 아무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를 수 있으며 심지어는 소위ABC(핵·생물·화학)⁸⁾무기의 사용도 우려되고 있다.

(4) 자경주의 테러

자경주의적 테러리즘은 폭력행위를 통해서 국가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데 목표를 두지 않고, 오히려 국가권위를 강화시키려고 한다. 자경주의적 테러단체의 보기로는 미국에서의 3K(KU Klux Klan:큐클럭스클랜)⁹⁾, 독일에서 볼 수 있는 공격적인 극우파의 새로운 형태도 포함시킬 수 있다. 가난한 개발도상국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오고 다른 한편으로는 물리적 힘의 행사에 대한 국가의 독점이 보장받지 못하게 되면, 유럽에서도 역시 자경주의적 테러 집단이 등장할 우려가 있다.

8) ABC무기란 A(Atomic Bomb) 원자폭탄, B(biological weapon) 생물무기, C(chemical weapon) 화학무기를 지칭한다.

9) KKK(ku klux klan)는 ‘백인 우월주의 단체’로서 흑인들을 백인들과 같이 지내지 못하도록 격리시키며, 흑인들의 경계 진출을 막기 위해서 베드포드 포레스트가 창립하였다. 얼굴을 흰 두건으로 가려서 활동하였으며, 흑인과 흑인해방에 동조하는 백인들을 구타하거나 그들의 집을 불태우는 등의 테러를 자행하였다. 1870년에 연방법에 의해 형식적으로 해체되었으나, 1915년에 활동을 재개하였다. 20세기에는 흑인뿐만 아니라 반가톨릭, 반유대주의를 강령으로 삼고 있으며, 수백만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2) 테러의 유형

테러의 유형은 테러범들의 목적 및 목적 달성의 용이성, 공격 목표, 테러의 수단과 방법 등으로 분류한다. 일반적으로는 테러 목적 달성이 용이한 항공테러, 테러 성공률이 높은 해상테러, 작은 양으로도 큰 테러 효과를 볼 수 있는 화생방 및 생화학테러, 정보화 사회의 발달로 생긴 사이버테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항공테러

테러범들이 항공기 납치를 선호하는 주된 이유는 첫째, 인질을 담보로 한 활동자금을 마련하기가 좋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들의 목적을 달성한 후에 쉽게 탈출할 수 있으며 셋째, 최단시간에 전 세계에 그들의 사상과 이념을 홍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항공기 공중폭파는 항공기 납치사건보다 적게 발생되지만 수만 피트의 상공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다른 테러 사건보다 엄청난 피해가 발생된다. 공항출입국 시설과 관련 시설에 대한 테러는 1970년대의 90여건에 비하여 1980년대에는 230여건이 발생하여 무려 2.5배 정도 증가하였다. 미사일 공격은 1980년대 이후 항공기 납치 및 공중폭파, 공항출입국시설에 대한 각국의 방어력 강화로 인한 대체테러 방안으로 나타났는데, 철저히 위장된 상태에서도 가능하며 파괴력 역시 공중폭파를 능가한다.¹⁰⁾

(2) 해상테러

1970년부터 1989년까지 해상테러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 이유는 세계 물동량의 90% 이상이 해상 교통수단을 이용하므로 해상테러범들에게 공격의 표적이 용이해졌다. 항공관련 테러범으로 인한 손실이 엄청난 각국에서 항공테러 진압대책을 세우고 국가 간 공조지원체제 유지와 테러진압특공대를 창설하여 테러범 진압에 투입하자, 테러범들이 성공률이 희박해진 항공 테러행위를 해상테러 행위로 전환시킨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해상교통로의 출발점인 항만시설은 국가 기간산업시설로 매우 중요하다.

10) 이원창(2003), 전개논문, pp.141-142.

(3) 화생방 테러

구입하기 쉬운 약품에 독약을 주입, 살상을 자행하여 대중의 공포를 조성하는 경우로서, 미국 시카고에서 감기약인 타이레놀에 독약을 주입하여 수명의 시민을 사망케 한 일이 있다. 이와 같이 극히 적은 양의 화학약품으로도 많은 인명 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가 요망된다. 생물 무기에 의한 테러란 넓은 의미에서 사람이나 동식물에 해로운 병원성 미생물, 생물체, 독소, 질병매개물을 이용하여 치사 및 무능화 효과를 주기 위해 이들 무기 등을 사용, 테러하는 행위를 말한다. 핵무기에 의한 테러는 핵무기를 공격의 수단으로 하는 경우와 핵연료 운반차량, 핵발전소, 원자로, 핵폐기물 저장소 등을 파괴하는 경우가 있다.

(4) 사이버 테러

사이버 테러란 컴퓨터가 합성한 가상현실의 세계와 가상인간의 영역과 같이 인간체계가 운용되는 공간에서의 테러로서, 이는 정보화 사회의 과학기술 발전을 역이용하여 취약점을 공격함으로써 물리적인 시스템 파괴보다는 훨씬 결정적인 손실을 강요할 수 있는 총체적인 가상공간에서의 정보 마비를 추구하는 테러 수행방식을 의미한다.

제 2 절 테러리즘의 역사와 사상적 배경

1. 테러리즘의 역사·사상적 배경

테러리스트들은 그들이 테러리스트가 되는 이유가 어떠한 간에 테러활동 그 자체를 합리화하고 미화하며 또한 정당성을 부여하려 한다. 테러리즘이 어떠한 이념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테러를 조장시키고 촉진하는 장치사상 및 폭력이론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테러는 주로 두 가지의 목적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는 독재자 정권을 지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강제, 체포, 살해, 투옥, 감시 등의 제 방법으로 국민의 사고와 행동을 완전히 조정하는 방법이며,

둘째는 특수단체가 기존정권을 전복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정권의 무능함과 전통성의 결여를 노출시켜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으로 이끌고 가려는 데 그 주안점이 있다.¹¹⁾ 따라서 테러는 상대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기존정권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필요한 질서를 파괴하는 단순한 폭력으로 간주하는가 하면, 반면에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착취와 피착취자의 구별 없이 행하여지는 범법행위와는 달리 뚜렷한 정치적 목적 의식하에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테러 행위가 정치적 차원의 게릴라전으로 불릴 때 테러는 게릴라전의 한 형태이며 정권의 전복을 추구하는 목적을 갖는다.

테러리즘을 합리화시키는 정치사상으로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비롯하여 무정부주의(Anarchism), 허무주의(Nihilism), 스탈린주의, 트로츠키주의, 나치즘(Nazism), 파시즘(Fascism) 등 많은 정치사상과 이론들이 포함되어 테러를 주창하는 이데올로기들과 테러집단들이 포함되며 테러를 주창하는 이데올로기들과 테러집단들이 구체적으로 내세우는 정치이념들은 매우 다양하다. 특히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테러리즘에 관하여 새로운 이론을 연구하는 정치학자들이 다수 등장하였는데 대표적인 학자들이 프란츠 파농(Frantz Fanon)과 마리겔라(Carlos Marigella), 마르쿠제(Herbert Marcuse) 등이다.¹²⁾

2. 테러리즘과 폭력 이론

세계 제 2차 대전 후에 테러의 타당성과 효과성에 관하여 새로운 이론들을 개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실천까지 한 정치 테러 이론가들이 많이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 현대 테러 이론가로는 프란츠 파농(Frantz Fanon)과 마리겔라(Carlos Marigella), 마르쿠제(Herbert Marcuse) 등을 들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들의 사상적 배경과 주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11) 권문술·민만식(1985), 『전환기의 라틴아메리카』, 서울 : 탐구당, p.140.

12) 이태운(2010), 『현대 테러리즘과 국제정치』, 경기 : 한국학술정보, pp.105-106.

1) 프란츠 파농의 폭력이론(Frantz Fanon)

테러리즘과 폭력주의를 이론 및 사상적으로 체계화하여 현재의 국제 테러리즘에 큰 영향력을 행사 한 사람이 프란츠 파농이다. 1952년 알제라 전쟁 당시 한 종합병원의 의사로 근무한 그는 1961년 그의 대표작인 「대지의 저주받은 자들」(The Wretched of the Earth)을 통하여 식민지 폭력에 의한 불평등과 이의 해결 방안으로 폭력의 사용을 제창하는 동시에 폭력 이론의 정립에 정열을 쏟았다. 유엔 총회 의장을 역임한 색키(Alex Quison Sackey)는 이 저서를 평하면서 “자유, 평화 그리고 인간 존엄을 위해서 싸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알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책을 필독해야 한다.”고 높이 평가하였다.¹³⁾

파농은 식민지주의와 인간 편견에 대응하는 비법은 폭력의 사용이며, 폭력은 식민 통치로부터 해방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민중의 열등의식과 절망, 나태를 해소시킬 수 있으며 두려움을 제거하고 자존심을 되찾을 수 있는 정화의 수단도 된다고 주장하였다.¹⁴⁾

당시 그가 직면한 세계는 두 개의 상대적 극점을 이루고 있는 식민자와 피식민자 사이의 폭력과 긴장이 존재하는 상황이었다. 그는 “탈식민화는 항상 폭력적 현상이다. 탈식민화는 새로운 인간을 창조하는 작업이며 식민화되었던 ‘사물’이 자신을 해방시켜 가는 과정에서 진정한 인간이 되는 것이다.”¹⁵⁾라고 역설하였으며 식민자들의 특수한 이익을 상대로 보편적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테러는 필연적이며 또한 의무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다음과 같은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억압 받고 짓밟힌 피식민자들에게 합법적인 방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명되었을 때, 나는 그들은 저항할 수도 있고 비합법적인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폭력을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새로운 일련의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라기보다는 다만 식민지 권력을 파괴하는 것일 뿐이다.”¹⁶⁾

13) 하경근(1983), 『제3세계 정치론』, 서울 : 한길사, p.197.

14) Dobson Cristopher and Payne Ronald(1982), *The terrorist*, New York : Facts on File, inc, pp.18-23

15) Frantz Fanon(1965), *The Wretched of the Earth*, New York : Grove Press, p.6.

16) 최정섭(1982), 『프란츠 파농연구』, 서울 : 한마당, p.101.

과농은 폭력주의는 살인함으로써 거듭나며, 폭력은 억압된 자들이 사회적·도덕적 새 생명을 얻는 방편이고, 오직 조직되고 교육된 폭력만이 대중에게 사회의 진실을 이해하게 해 주며, 개인의 차원에서 억압 받은 자들을 열등의식, 절망감, 무력감에서 해방시켜 준다는 것이다. 그는 자본주의건 공산주의건 간에 선진국들은 제3세계를 착취하고 노예를 만듦으로써 부유해졌으므로 이제는 선진국이 제3세계에 대하여 부의 재분배를 그 대가로 지불해야 하며 이를 실행하지 않을 경우 폭력 투쟁의 권리를 가진다는 이론을 체계화하였다.

국제 테러리즘의 근원적 문제인 폭력을 보는 시각은 미국을 비롯한 자유세계는 테러리즘을 국제 범죄로 간주하는 반면 과농, 소렐, 본 헤퍼 등은 폭력을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반대의 입장에 선다. 이와 같이 어떠한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폭력 사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사상가로 프랑스의 상디칼리스트인 조지 소렐은 「폭력에 대한 성찰」(Reflection on Violence)을 통하여 폭력이 사회의 아픈 곳을 치유해 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칼 바즈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단순한 논리를 주장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한계 상황에서의 보호적 긴급 행위로서의 폭력 사용은 부득이한 것이 아닌가?”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즉, 주어진 한계 상황의 조건 부여에 따라 폭력을 때로는 긍정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필요악’이라는 것이다.

과농의 인과응보의 법칙 원용은 식민화 과정에서 식민지 본국은 폭력을 사용함으로써 토착 사회를 붕괴시켰고 사회 체제나 관습 등을 파괴하였기 때문에 탈식민화 과정에서의 폭력 사용은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이론이다. 그러나 적자생존의 원칙에 의한 약육강식의 투쟁사로 점철된 국제 정치사의 상황에서는 항상 강자의 발언이 정의이며 그것이 치자의 원리로 작용하여 온 것이 다반사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강자의 논리·주장만이 항상 정의라는 상황 여건 속에서 오랫동안 버림받아 온 ‘대지의 저주받은 자들’은 폭력에 항거함으로써만 자신들의 정신 상태를 치유할 수 있으며 그들의 아이덴티티(identity)의 추구라는 시각에서 볼 때, 기존 국제 사회에 대한 저항의 논

리는 비록 그것이 폭력을 수반할지라도 제3세계의 현실 속에서 보면 역사의 순리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식민지 지배 체제의 부정을 전제하면서 이에 대한 목적 수단으로서 폭력 사용의 불가피성을 긍정하는 파농의 이론은 모든 테러리스트와 테러리즘에 있어서 폭력만이 보다 나은 세계를 만들 수 있다는 정치사상에 기인하고 있다. 오늘날 사회의 유명한 테러 조직들의 목적은 매우 다양하게 보이나 거의가 기존 체계의 폭력적 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폭력을 합리화하고 있다.¹⁷⁾

파농의 폭력 교사에 관한 이론은 자유주의 세계의 좌경 지식층과 민권 지도자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다. 그의 저서를 탐독한 일부 학생들과 노동자들은 제3세계가 폭력을 사용하는 동기와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으며 국제 테러리즘에 대한 동정과 지원, 또는 실제로 가담하는 사례로 발전하였다. 이들이 폭력을 합리화하는 논리는 사회 자체가 병들어 있어 어설픈 개혁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며, 국가 자체가 폭력화 되었으므로 폭력만이 이를 극복할 수 있으며, 폭력주의자들이 목적하는바 진리는 어떠한 행동도 정당화된다는 것이다.¹⁸⁾

미국 및 서방 국가들은 테러리즘을 인도적 견지에서 비난하였으나 제3세계 국가들은 테러리스트들을 식민주의자들에 대한 ‘민족 해방투사’로 보았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폭력 내지 테러리즘에 대한 가치관적 인식의 문제로, 테러리즘도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진다는 갈등론적 관점이다. 그러나 국제 정치에 있어서 테러리즘이 어느 쪽에 의해서든지 용이하게 해결될 성격의 것은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반드시 희생의 대가가 지불되어야 하며, 또한 국제 사회에서 테러리즘은 줄곧 사회를 괴롭히며 수많은 생명을 파멸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¹⁹⁾

17) James Berry Motley(1981), "International Terrorism : New Mode of Warfare" *International Security Review*, No.19, p.1

18) 이들이 폭력을 합리화시키는 개념은 1) 사회 자체가 병들어 있어 어설픈 개혁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며, 2) 국가자체가 폭력화되었으므로 폭력만이 이를 극복할 수 있으며, 3) 폭력주의자들이 목적하는바 진리는 어떠한 행동도 정당화된다는 것이다.

19) 김응수(2012), 전계서, pp.44-47.

2) 마리겔라(Carlos Marigella)와 도시 테러리즘 이론

현대적 테러리즘의 영감이 알제리 혁명의 경험을 토대로 한 프란츠 파농에서 비롯되었다면 국제 테러리즘의 현대적 전술은 마리겔라로부터 완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마리겔라는 브라질에서 한 혁명집단을 직접 지휘하였고 그 자신이 개발한 테러 전술을 실천하였다.²⁰⁾ 테러리스트들이 일단 그들의 그룹에 소속되면 그들은 마르크스, 레닌, 모택동, 체게바라, 마리겔라 등의 저서를 통하여 ‘사회 파괴’(social demolition)의 학문과 광범위한 접촉을 하게 되며, 특히 마리겔라의 교범은 테러 수법과 관련하여 모택동, 호지명, 체게바라의 전술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또한 도시 게릴라는 정부의 집요한 적인 바, 국가 지배 권력을 행사하는 인물과 기관에 대해 조직적으로 가해하며 이들은 근본적 특징은 무력으로 투쟁하는 것임을 주장한다. 흔히 게릴라전을 언급할 때 우리는 ‘농촌 거점’게릴라를 연상하며 모택동, 호지명, 체게바라 등은 농촌으로부터 도시로 포위하여 들어가는 전법을 사용하였으나 마리겔라는 현대 사회의 특징으로 보아 현대적인 테러리즘과 게릴라는 처음부터 대도시에서 작전이 되어야 성공 확률이 높다는 이론을 전개하였다.²¹⁾ 왜냐하면 1960년대에 들어오면서 국제 테러리즘은 첨단기술과 고도의 과학 기술로 인하여 테러의 성격이 ‘도시성’을 갖게 되었고 또한 도시화의 영향으로부터 정부를 반대하거나 이를 지지하는 반정부 분자들이 압도적으로 도시에 밀집하여 거주하기 때문이다.

헌팅턴(S.Huntington) 교수도 진정한 혁명은 도시 근로자, 부르주아 농민의 합세로만 이룰 수 있으며 도시에 있어서 급진주의 운동가들은 테러리즘의 전술을 사용하여 기존의 질서를 유린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마리겔라의 영향을 받은 전 세계의 테러리스트들은 인질범의 석방금을 요구하며, 외교관과 정부 관리들을 납치하여 정치범의 석방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일삼고 있다.

20) 그는 테러전술을 종합하여 ‘도시게릴라전 소교범’(Mini Manual of the Urban Guerrilla)이라는 교범을 출판하였으며, 그 후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쿠바심리전 기관에 의해 세계 각국으로 배포되어 테러리즘의 교범으로 활용되고 있다.

21) Dobson and Payne(1982), op.cit, p.23.

3) 뉴레프트(New Left)와 국제 테러리즘

국제 테러리즘의 현대적 활용을 주장한 학자는 마르쿠제(Herbert Marcuse)이며 선진국의 젊은 테러리스트들과 테러 집단들은 마르쿠제의 영향을 받은 뉴레프트 운동으로부터 받아되어 가속화되었다.²²⁾ 프랑크푸르트학과(The Frankfurt School of Philosophy)의 일원인 그는 1941년 그의 첫 저서인 「이성과 혁명」을 출판하였으며, 1965년 이후부터 뉴레프트의 선봉학자로서 세계적인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마르쿠제는 20세 중엽의 선진국, 특히 미국 사회에 비대한 억압적 특성을 철학적·심리학적으로 분석하여 선진국의 사회 구조는 물론, 인간의 목표와 태도에 혁명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마르쿠제는 서방 세계의 엘리트들이 고의적으로 낭비와 소비를 촉진시켜 과다 수요를 창출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 간은 물론 개인 간의 빈부 격차를 심화시켜 놓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급진적인 그룹들과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으며 중상류층에 속한 일부 젊은이들은 자신들이 옳지 못한 방법으로 혜택을 받았다는 사실에 죄의식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그는 「일차원적 인간」(One Dimensional Man)에서 대학생과 지식인을 혁명의 잠재력을 가진 집단으로 주시해야 할 부정 세력이며, 고도 산업 사회에서 ‘위대한 거부’(great refusal)가 여러 가지 형식으로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피력하였다.²³⁾ 또한 젊은이들의 사명은 힘없이 버려진 사회 하층으로 하여금 혁명에 가담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기존 세력에 저항하여 합법적 투쟁을 하여야 하며, 이것이 실패하면 불법적 방법을 동원하여 혁명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때 진정한 혁명가에는 정치적·사회적·출신적 이유로 박해당하는 ‘아웃사이더’(outsider)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⁴⁾

뉴레프트들은 현대 사회를 개선하기 위하여 폭력이 필요하다고 믿으며

22) 뉴레프트(new left)란 용어는 1952년 창간 월간지인 ‘뉴레프트 리뷰’(New Left Review)를 중심으로 한 자유 성향의 마르크스주의 그룹에 의해 창출되었으며, 이후 이 용어는 1960년대 서방선진국의 학생운동과 언론에 의해 애용, 확산되었다.

23) 신일철(1981), 『프랑크푸르트학과』, 서울 : 청람문화사, p.132

24) Barry Katz(1982), Herbert Marcuse and Art of Liberation, *The Economist*, p.83

뉴레프트 초기 단계에서는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점진적 혁명을 내세우나, 점차적으로 더욱 폭력적인 테러와 게릴라 활동을 구축해야 하며 폭력이 모든 것을 정당화시키며 개혁의 필수 수단으로서 뉴레프트 사상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뉴레프트에 참여 또는 동조하고 있는 개인 및 집단에서는 행동 지향, 확고한 자아추구, 정치·경제·사회·법률적 균등, 그룹 및 사회 지향, 억압과 압제로부터의 자유, 참여 확대적 민주주의 구현, 폭력 혁명의 추진 등과 같은 가치관의 목표를 추구하였다.

이러한 마르크주의 정치 사상은 1960년대 말 뉴레프트들의 정치적 행동과 동기 및 목적에서 이탈하여 직접적인 폭력주의로 나타났으며 월남전 반대, 빈부 격차 해결, 무기의 제한 등에 대한 학생들의 도전에 크게 활용되었다. 즉 뉴레프트의 영향을 받은 테러 행동 대원들은 대부분 제3세계의 지식층들이었으며 많은 테러리스트들은 그들이 폭력의 사회에 접근하기 전에는 사회로부터 소외된 자들이었다.²⁵⁾

제 3 절 현대 테러리즘의 발생원인과 실태

1. 테러리즘의 발생원인

어떤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해 전략으로서 테러리즘은 정치적·사상적 측면과 지역적·조직적 등 다양한 양상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발생원인의 파악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다. 본 절에서는 그 발생원인을 개인에 초점을 둔 미시적 관점(micro perspective)과 거시적 관점(macro perspective)의 국제정치 체제적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1) 개인 심리적 차원의 원인

전쟁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한 접근방법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으며 상이한 접근방법은 같은 전쟁에 대해서도 상이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다. 국제 정치학자들은 전쟁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몇 가지의 다른 수준에서

25) 이태윤(2010), 전계서, pp.106-114.

의 설명을 시도하고 있다.²⁶⁾ 그 중 하나는 전쟁이란 결국 인간이 일으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인간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러한 접근에 의하면 나폴레옹·히틀러·후세인과 같은 특정 정치 지도자의 존재야말로 전쟁의 주요 원인이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국제 정치학자들은 사회의 속성(national attribute)으로부터 전쟁의 원인을 찾아내고자 한다. 자본주의 국가들이야말로 전쟁의 원인을 찾아내고자 한다. 자본주의 국가들이야말로 전쟁의 원인 된다는 주장, 즉 민족주의는 전쟁의 원인이라는 주장이나 독재 정부는 민주 국가보다 더욱 호전적이라는 주장 등은 모두가 사회의 속성으로 전쟁의 원인을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들이다. 물론 이러한 주장들이 체계적으로 연구되어 그 타당성이 입증되지는 않았다.

다음의 분석 차원은 국제 정치적 차원에서의 분석이다. 국제 체제의 차원을 따르는 경우 중요한 것은 국가 간 힘의 분포 양상이지 각 국가 사회의 내적인 속성은 아니다. 여기에서는 세력균형, 동맹 관계의 형성 등의 문제가 전쟁 연구의 주제가 된다.

심리학자들은 폭력의 원인을 논함에 있어 인간의 내적 요소가 행위를 유발하게 하고, 지시·조절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이러한 동기의 본질은 두 가지로 대별될 수 있는데 그 하나가 폭력에 대한 자극 요소이며 다른 하나는 목적 달성을 위한 합리성의 정도이다. 이 두 요소는 폭력과 관련하여 개인의 성향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이들 자극 요소는 외적 요소와 내적 요소로 구분되며 외적요소는 행위를 유발시킬 수 있는 상황적인 것으로 핵 문제·빈민문제·식량문제·실업·전쟁 등과 같은 환경적 동기를 수반하는 것이며 이들은 이미 존재해 온 내적 동기에 반응하게 된다. 한편 내적 자극 요소는 개인 또는 집단의 심리 상태에 기인하며 여기에는 이성적·감성적 요소로 구분되어 목표에 부합되는 합리성에 기초를 두어 결정된다.

26) J. David. Singer., "The Level of Analysis Problem in International Relation", in Klauss Knorr and Sidney Verba, eds., *The International System: Theoretical Essays*(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1)가 대표적이다.

폭력 행위의 성격이 공적 성향일 경우 사회적 반응으로 나타나며 사적 성향일 경우 폭력은 개인 범죄로 나타난다.

검증하는 국제 테러리즘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주 등장하는 이론이거 (Ted Robert Gurr)의 ‘상대적 박탈감’²⁷⁾ 이론이다. 그는 ‘기대와 실제 간의 괴리’내지 ‘기대 가치와 가치 능력간의 갭’에서 정치적 폭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탄생한 신생국들이 정치적 독립과 더불어 근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즉 현실의 당위와 현실사이의 불일치에서 상대적 박탈감이 야기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당위란 그들이 당연히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생활의 조건이나 가치를 말하는 것으로 절대적 박탈감이란 인간으로서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의 제 조건과 실제로 향유하는 조건의 격차에서 오는 괴리를 뜻한다.²⁸⁾

2) 국제 정치적 차원의 발생 원인과 특징

2차 세계 대전 이후의 대부분의 테러리즘은 19세기와 20세기 초 러시아의 철학과 이념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현대의 사회적·정치적 국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테러리즘이 전략 및 전술상 많은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테러리즘의 현대적 특징은 현대적 상황 변화를 반영하는 것인데 현대적 상황이 변화됨에 따라 테러리즘의 철학적 근원보다는 전략·전술이 변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테러리즘의 특징 변화는 우선 테러리즘의 원인 측면에서 파악될 수 있다.

테러리즘의 원인은 두 가지의 일반적 범주로 나누어질 수 있다. 먼저 직

27) 상대적 박탈감과 관련하여 폭력을 야기시키는 사회 과정의 전형적인 유형을 열망적 가치 박탈(aspirational deprivation), 점감적 가치 박탈(decremental deprivation), 점진적 가치 박탈(progressive deprivation) 구분된다. 먼저 열망적 가치 박탈이란 개인의 희망과 기대감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증대해야 하지만 그 열망을 채워 줄 충족감이 변화가 없을 때 발생하는 현상이다. 두 번째, 유형인 점감적 박탈감이란 개인의 기대감이 시간적으로 일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에 비해 그 열망을 채워 주는 가치 충족능력이 오히려 점점 하락하는 경우이다. 세 번째, 점진적 가치 박탈은 일정 기간 동안 국민의 열망을 채워 줄 가치 충족감이 가치 능력과 비례적 상승을 보여 줌으로써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한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일정 시점에서 그 충족도가 하락함으로써 발생한다.

28) 이태윤(2004), 전계서, pp.118-123

접적인 원인과 촉진적 원인으로 전자는 식민지주의, 인종적 예측, 속박 등의 사회·경제 및 정치적 불행과 좌절감에 관계되며 후자는 테러리즘을 보다 용이하고 가능하게 만드는 요인으로서 전술로 활용될 수 있는 요소들로 구성된다. 이 두 가지 범주의 원인은 개별적인 테러 사건과 조직적인 테러리즘 간에 상이하게 나타나지만 대체로 직접적인 원인은 비교적 최근까지 일정한 경향을 보여 주는 반면에 근래의 초국가적인 테러리즘의 성행은 거의 전적으로 촉진적 요소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 결과는 직접적인 원인에 대한 일반적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개별적인 테러의 상당수는 정치적 또는 사회·경제적 직접적 조건이 요건이 되기보다는 심리적 병리적인 현상인 경우도 많다는 점이 인식되고 있다. 후자는 직접적인 원인을 세대의 사회 운동인 탈식민 운동으로 보거나 하면 세계 경제의 주기적 변화와 테러리즘의 직접적 원인 간의 상관적 파동 현상을 지적하기도 한다.

또한 세계의 관료주의화 증대를 직접적 원인으로 보기도 한다. 즉, 관료화에 의한 전체주의적 성향이 테러리즘의 원인이 된다는 뜻이다. 그런가 하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현상의 유지를 지향하는 사회에서는 소수의 혁명 집단이 다른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테러 수법에 호소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다.

최근 테러리스트들의 특징적 변화로는 테러 동기의 변화, 대량 파괴 기술의 확산, 정보와 기술에 대한 용이한 접근, 중요 국가 하부 구조에 대한 집중 공격 등을 들 수 있다. 현대의 테러리즘 전문가들은 대부분 직접적인 원인보다는 촉진적 원인에 더 큰 관심을 갖는다. 이 촉진적 원인 요소로는 원한(resentment), 공중성(publicity), 낮은 실패율(low-risk) 또는 실현 가능성(feasibility), 효율성(efficacy), 대중의 지지(popularity), 표적(target), 기술(technology), 묵인(toleration) 등이 제시되고 있다.²⁹⁾ 이 중 최근 초국가적 테러리즘의 원인을 새로운 표적의 수적 증대와 표적의 취약성 증대, 테러 무기 및 장비의 새로운 기술의 활용 가능성 증대, 테러 보복의 공포에 의한 테러에 대한 대중의 무관심한 사회적 태도에서 찾고 있다.

29) C. Johnson은 이들 요소 중 '3T'(target, technology, toleration)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함.

2. 테러리즘의 실태와 변화(1980년 이후)

1) 80년 이후 테러리즘의 실태 및 현황

국제 테러리즘에 원인에 관한 다양한 분석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테러리즘이 갖는 특수성 때문에 명확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테러리즘이 갖는 복잡한 정치적 의미 때문에 시시각각 발생하고 있는 테러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처방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21c 들어서 발생하는 여러 테러리즘 사건은 독립적이고 단일적이지 않다는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80년 이후 테러리즘의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1980년대 들어오면서 테러리즘의 발생건수가 증가되어갔다. 특히 팔레스타인에 의한 테러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과격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등장에 의한 것이다. 1983년 4월 베이루트 미 대사관 폭발과 10월의 베이루트 해병대 막사에 대한 자살 공격은 레바논에서 미국을 나가게 하려는 목적을 담은 등 미국이 주요 테러공격 대상국이었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냉전체제의 붕괴와 함께 국제사회가 재편되었고 이에 따라 국가의 의한 테러의 확산이 줄어들면서 감소하기 시작한다. 지역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다. 민족주의적인 분쟁의 양상을 보이면서 신·구교라는 종교적 대립으로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북아일랜드 문제, 1960년대 이후 세계 테러리즘의 최대 발원지였던 중동지역, 특히 아랍과 이스라엘간의 평화회담이 진전을 보이면서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조금씩 찾아가면서 테러리즘의 발생건수도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다.³⁰⁾ 그러나 외형상의 변화에도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여전히 평화 분위기가 완전히 정착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테러리즘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목적달성을 위한 테러리즘의 활동은 점차 대형화되는 추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연대별로 통계 수치를 살펴보면, 1980년대 팔레스타인에 의한 테러가

30) 최진태(2002), 『“테러리즘의 역사적 기원과 변천”, 『국방연구』 제45권 제1호,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p.22.

증가되었고 1990년대에 테러리즘 발생건수는 3,807건으로 80년대 보다 55%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부상자 수는 그 발생건수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건당 약 두 배 가까운 증가를 보여주고 있듯이 발생건수가 줄어들었지만 발달되고 세밀한 무기의 사용 등으로 인한 테러리즘의 무차별적이고 규모면에서 대형화 추세를 견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테러리스트의 더욱 극적이고 파괴적이지 않으면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인식하면서 테러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2) 현대 테러리즘의 변화 과정과 특징

Karl Marx가 “이제까지의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이다”라고 주장했지만, 20~21C 테러가 세계사의 흐름 속에 진행되어 왔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테러 행위는 시대를 넘나드는 인류문명의 ‘악의’였으며 국제사회는 테러의 예방과 제거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테러는 공포의 대상으로 잔존하고 있을 정도로 변형되고 발전되어왔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동맹이었던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지에서 극좌 테러분자들의 테러활동이 있었다. 일본·독일의 「적군파」 이탈리아의 「붉은 여단」 등이 이념적인 목표를 위해 테러활동을 하였다. 더하여 정의나 테러나 하는 이견이 분분하지만 식민제국에 맞서는 민족운동의 수단으로 자행되어 오면서 소수민족의 박탈감 해소를 위한 자유와 해방추구라는 목표로 테러리즘을 이용하였다.

1970년대 전반기까지만 하여도 테러리즘에 대해 국제사회는 큰 우려를 가지지 않았다. 그러나 후반기부터 테러리즘이 대형화 되면서 많은 희생자가 속출하자 국제사회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기 시작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테러리즘은 조직의 지휘통제 하에 어떠한 목표를 이룩하기 위해 정해진 대상에 의해 이루어졌고, 납치, 폭탄, 암살 등 극한적이었지만 무차별적이지는 않았다.³¹⁾ 그러나 테러리즘은 국수주의나 사상·종교적 동기에 의해 자행되고 테러리스트들을 움직이는 체계화된 조직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특히 중동지역의 경우 테러리즘이 테러조직의 지원에 의해 추진되

31) 이현경(2002), 『미국의 대반테러 세계전략과 대북전략』, 서울 : 통일연구원, p.26.

고 있으며 반미주의와 함께 종교·이념적 유대를 통해 초국가적 조직망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21C 테러리즘의 대표적인 9·11 테러공격은 미국을 표적으로 한 이슬람 원리주의 과격파인 알카에다 조직에 의해 이루어졌다. 대상은 미국정부지만 세계 자본주의 경제번영의 상징인 세계무역센터라는 점과 피해자가 민간인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은 현재의 테러리즘의 과격성과 무차별적인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화 시대의 나타나는 전쟁은 ‘비대칭 전쟁’(asymmetric warfare)³²⁾으로 간주된다. 과거의 전쟁이라 함은 정부, 군대, 국민이 힘과 수단을 통해 상대와 맞서 온 형태라고 한다면 현재의 전쟁은 대상과 목표가 뚜렷하지 못하며, 정부와 국민, 군대와 시민, 정규군과 비정규군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동시에 이념, 종교, 문화 등에 기반한 비국가, 초국가적 단위가 중요한 행위자로 등장하고 있다.³³⁾ 세계무역센터 테러공격의 적은 국가의 형태가 아니며, 또한 특정지역에서 조직된 테러도 아닌 초국가적인 테러 집단들이 자행했다는 것은 이전의 테러리즘과 다른 형태의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발달된 정보망을 통한 테러리즘의 확산은 미국의 반테러 전쟁과 강경한 대응을 일시에 무너뜨렸다.

최근에 발생한 각종 대규모 테러사건부터 작은 규모의 테러사건까지 각지에 퍼져있는 테러집단이 연관되어 있고 이는 보복공격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은 일련의 테러리즘이 도미노 현상과 같이 이어지고 있다는 충격을 갖게 해준다.

극단주의에 의한 테러행위는 기존의 정치적 테러단체들이 가능한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던 패턴과는 달리 최근의 추세는 오히려 민간인을 볼모로 대량살상을 노리고 있다.³⁴⁾ 이는 테러단체의 입장과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그 과급효과가 극대화 된다는 사실을 노린 것이라 볼

32) 뚜렷한 상대와 목표가 불명확하며 일반적인 전쟁과 그 형태와 방법이 다르다. 상대방이 정정당당히 싸우기를 거부하는 곳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갈등을 포함하므로 비대칭전쟁과 흡사하다. William S.Lind et al, “The changing Face of War”

33) 이상현(2001), “MD와 자살테러:비대칭 전쟁과 21세기 안보환경”, 『정세와 정책』 제63호, 세종연구소, p.7.

34) 조성권(2001), “21세기 새로운 테러리즘과 한국의 대응방안”, 『통일로』, 서울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p.11.

수 있다. 따라서 테러단체들의 정치적 목적이 도덕성을 초월하며, 반인류적, 반문명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의 들어선 새로운 형태의 ‘테러리즘의 특징’³⁵⁾들을 살펴보면, 우선 테러리즘의 목적이 민족의 독립, 식민잔재 세력의 청산, 자본주의체제 타도 등과 같은 정치, 경제,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극단주의자들의 서방에 대한 반감, 특히 미국에 대한 적대감 등의 추상적인 이유로 요구조건의 제시도 없고 정체도 밝히지 않는 소위 ‘얼굴 없는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 또한 테러단체가 여러 국가, 지역에 걸쳐 연결된 이념 결사체로서 조직중심이 다원화되어 조직의 무력화가 어려운 특징이 있다.

오사마 빈라덴 조직은 세계 34개국에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조직 간의 의사소통과 원조를 향상시키고 많은 수의 조직원을 손쉽게 협조시킬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후원자와도 접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듯 테러리즘의 조직체계가 과거와는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공격주체가 불분명하여 추적이 불가능하다. 이전의 테러조직들은 지도자 아래의 수직적인 체제로 지도세력이 제거되면 와해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현재에는 단일화된 조직이 아니라 여러 국가 혹은 지역에 걸쳐 중심이 다원화돼 있어 하나의 중심을 제거해도 다른 중심이 그 역할을 대신하므로 조직의 무력화가 어려운 특징이 있다.³⁶⁾ 둘째, 테러장비가 폭탄이나 미사일이 아니라 우리주변에 존재하면서 보호되는 비행기, 주유소, 차량 등 시설이나 장비로 그 지배권만 탈취하면 기존장비 이상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 색출이 곤란하며 빠른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테러현장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보도됨에 따라 테러범들이 노리는 공포가 최고도로 확산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특징으로 탈냉전 시대의 국제 테러리즘에 대한 과거 공산주의 국가의 배후지원이나 테러수출의 가능성은 크게 감소하였으나 제 3세계 국가들간의 테러지원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탈 냉전시대와 더불어 과거 정치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국제테러가 이제는 정치적 목적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종교적·민족적·경제적 문제와

35) 윤우주(2002), 『한국의 대테러 대비태세』,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p.78.

36) 최진태(2002), 전개논문, p.31.

관련된 다양한 목적에서 이슈지향적인 테러로 변모하고 있다.

이와 다르게 정치적 목적보다는 경제적 이익에 집착하여 마약범죄와 연계하여 전개되는 마약테러범죄, 대규모 환경파괴를 위협하는 환경테러범죄 등 새로운 형태의 뉴테러리즘이 등장하고 있다. 더욱 특징적인 형태인 사이버테러리즘의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자본주의의 세계화와 이에 따른 정보화 시대에 세계는 사이버 테러리즘의 위기에 놓여있다. 사이버 테러는 해킹의 대상이 국가의 주요 공공기관 혹은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행하면서 정치적 혹은 경제적 목적을 내포하고 해킹수단이 공격성을 띄며 그 물질적 피해가 심각한 경우를 의미한다.³⁷⁾ 사이버 테러리즘은 기존의 테러리즘과는 방법과 형태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새로운 공포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인류의 문명사회는 테러로 얼룩질 수 있는 위기에 봉착해 있다.



37) 조성권(2001), 전계논문, p.19.

제 3 장 중동 및 동북아 지역 테러 양상과 현상 분석

제 1 절 중동지역에서의 테러 양상과 특징

1. 중동지역 테러의 역사적 변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아랍인-유대인 갈등은 ‘땅’을 둘러싼 매우 복잡한 상이한 정체성에 그 원인이 있다. 팔레스타인 ‘땅’ 문제에는 종교적, 민족적, 제국주의적, 문명적 갈등 요인과 수자원확보를 위한 경쟁이 모두 내포되어 있다. 유대인들은 75년과 135년에 로마에 항거하다가 팔레스타인에서 쫓겨나면서부터 1948년 이스라엘 건국까지 1800여년 동안 디아스포라³⁸⁾상태에서 차별과 탄압을 받으면서 살아왔다. 그들은 게토나 팔레라고 하는 유대인 집단정착촌에 강제로 이주하여 차별과 탄압 속에서 가난하게 살아왔다.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유럽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던 계몽주의 사상의 확산으로 유대인은 유럽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 결과 1850년경에 그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해졌고 정치에서 피선거권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1880년대에 동·서유럽에서의 사회과학적 다윈이즘에 기반한 자민족 중심주의가 확산되면서 유대인은 다시 탄압을 받기 시작했다. 1880년대에 발생한 프랑스에서의 드레퓔스 사건³⁹⁾, 러시아에서의 짜르Ⅱ세 암살사건이 보여주는 것과 같이 유대인에 대한 유럽인들의 편견은 시오니즘에 당기는 계기가 되었다.

자민족 중심주의에 기반한 반유대주의로 유대인들은 오랜 기간 동안 잠재의식 속에 숨겨두었던 향토, 즉 ‘하나님이 약속해 준 젖과 꿀이 흐르는

38) 디아스포라는 ‘이산(離散) 유대인, 혹은 이산의 땅’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이는 그리스어에서 온 말로 ‘분산(分散)·이산’을 뜻한다. 역사적인 서술에서 이 단어를 헬레니즘 문화 시대와 초기 그리스도교 시대를 통해, 그리스 근역(近域)과 로마 세계에서 유대인의 이산을 가리키고 있다.

39) 19세기 말, 프랑스에서 유대인 사관(士官) 드레퓔스의 간첩 혐의를 중신유형을 선고받았다가 석방되는데 이 개인적 문제가 정치적 쟁점으로 확대되면서 드레퓔스파, 즉 사회당, 급진당이 승리를 하는 사건

땅, 가나안'을 찾아 나섰다. 아랍인-유대인 갈등이 시작된 것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유럽에서의 유대인 집단촌은 유대인 전통과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했고, 유대인 민족주의인 시오니즘의 씨앗이 되어 결국 가나안으로 귀향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와 같은 반유대주의에 충격을 받은 헤르츨은 1896년에 「유대인 국가」라는 팜플렛 형식의 책을 통해 유대민족주의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는 유대인 이상국가라고 할 수 있는 이 책 서문에서 “...세상에는 반유대인 외침이 메아리치고 있고, 이러한 반유대인 외침이 잠재된 채 잠자고 있는 이 아이디어를 깨웠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시오니즘의 불씨에 불을 당겼다. 18, 19세기는 유럽에 산업혁명에 의한 근대화, 민족주의, 제국주의가 팽배해 있었고, 사회주의가 발흥하던 시기이다. 특히 영국과 프랑스는 아시아·아프리카로의 제국주의 침투를 위한 전진기지로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둘러싸고 치열한 각축전을 벌였다.

제1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면서 팔레스티나는 영국의 점령 하에 들어갔는데, 1917년 영국의 외무장관 벨푸어는 “영국 정부는 팔레스티나에 유대인의 국가 설립을 적극 지지한다.”는 벨푸어선언⁴⁰⁾을 발표하였다. 1920년에는 팔레스티나는 영국의 위임 통치를 받게 되었고, 그 이후 유대인의 이주는 더욱 급속도로 증가하여 1939년에는 총인구가 50만명에 이르게 되었다. 그 결과 유대인과 팔레스티나 아랍인 사이에 여러 차례의 민족 분규가 일어났고, 두 민족 간의 갈등은 점점 커지게 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뒤, 유대인과 아랍인의 갈등이 심화되자, 영국은 팔레스티나 문제를 국제연합(UN)에 상정시켜 버렸다. 1947년 11월 29일 유엔은 팔레스티나에 유대·아랍 연방 국가를 건설하는 방안과 아랍 국가와 유대인 국가를 개별적으로 건립하는 두 가지 방안을 놓고 표결을 하였다. 그 결과 유엔은 팔레스티나를 두 국가로 분할하는 방안(팔레스티

40) 1917년 11월 2일 영국 외무장관 A.J.벨푸어가 유대인이 팔레스타인에서 민족적 고향을 건설하겠다는 것을 지지한 선언, 여기서 영국이 노린 것은, 유대인의 여론을 연합국 측으로 끌어들이고 아울러 유대인의 팔레스타인입식(入植)을 통하여 중동정책의 포석을 굳히려는 데 있었다. 이 선언은 1920년 산레모회의에서 영국의 정식 정책으로 채택되었으며, 1922년 국제연맹이 팔레스타인 지방을 영국의 위임통치령으로 결정하였을 때, 그 전문(前文)에 이 선언이 포함되었다.

나의 영토 55%를 유대인에게, 그리고 나머지 45%를 팔레스티나 아랍인에게 제공하는 결의안)을 최종 의결하였다.

이러한 유엔의 결정에 대해 아랍인은 거세게 반발하였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결정을 즉시 받아들였고, 1948년 5월 14일 바이스만이 다윗의 기를 올리고 이스라엘 국가건설을 선포하자 몇 시간 후 UN분할 안을 반대한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아랍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함으로써 제4차에 걸친 중동 전쟁은 시작되었다.

2. 중동지역 테러의 특징

중동테러리즘은 이슬람 원리주의에서 정치·이념적 측면을 강조하는 세력들이 영향을 받아 그 성향이 급진적이고 과격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그리고 과거 및 현재 중동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미국과 서방세계가 이슬람세계를 위협하는 행위로 인식함에 따라 중동테러리즘을 구성하는 구성요원들이 자발적이고 자체적인 증식성향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자체 증식성은 이슬람·아랍이라는 공통분모만 있다면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테러를 자행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와 조직의 전산망 체계를 갖추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와 조직의 전산망은 중동테러리즘이 세계를 무대로 활동할 수 있는 광역성을 확보하게 하였다. 41)

중동테러리즘의 특성은 중동이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중동은 아랍인과 유대인의 갈등, 쿠르드민족의 자치권 문제와 인종, 종파, 정치체제 등 일상적인 테러리즘의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과 유럽은 이슬람을 테러리즘의 상징으로 여론화하고 있다. 중동테러리즘은 1990년 이전까지는 크게 팔레스타인문제, 소수민족 분리문제, 세속정부에 대한 일부 이슬람 원리주의 단체들의 반정부 활동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41) 로레타 나폴레오니(2004), 『모던 지하드 : 테러, 그 보이지 않는 경제』, 이종인(역), 서울 : 시대의 창, pp.187-201

냉전기였던 1979년 이슬람세계를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지키려는 무장 활동이 있었다. 구소련의 아프카니스탄 침공당시, 아프카니스탄에서 소련에 대한 무장활동을 수행했던, 무자헤딘은 아프카니스탄뿐만 아니라 이슬람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모인 전사들이었다. 냉전체제 하에서 미국은 아프카니스탄 반군을 지원하였으며 이슬람권 국가들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소련의 철군과 탈레반정권 수립 후, 이들은 제도권으로 편입되어 활동을 하거나 이들의 전투 경험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흩어지게 되었다. 현재 이슬람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급진 이슬람단체의 조직원들은 대부분 이들의 경험을 전수받아 활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1991년 걸프전쟁과 다국적군의 활동 그리고 9.11테러 이후 미국이 수행한 탈레반정권의 와해, 2003년 이라크 침공과 사담 후세인 정부의 붕괴, 이라크에서 석식 민주주의제도 이식 시도 등은 무슬림에게는 이슬람세계를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되었다. 이슬람 세계의 반발은 지하드 정신을 이끌어 냈고 이 지하드 정신은 급진무장단체들에게 무장활동의 정당성을 부여해 주었다. 중동지역에서의 미국의 일방적인 이익추구는 이슬람세계의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켰고 이후 중동테러리즘은 글로벌화, 대형화, 비대칭적 전쟁의 양상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과거의 테러리즘은 한정된 지역 내에서 일어났으나 1960년대에 와서는 세계의 모든 지역이 테러리즘에 노출되었다. 이와 같은 국제 테러리즘 환경은 1967년 아랍-이스라엘간의 제3차 전쟁인 ‘6일 전쟁’ 이후부터 조성되고 있다. ‘6일 전쟁’에서 아랍국가들이 패전하면서 PLO는 팔레스타인과 아랍민족의 문제를 국제정치 문제로 이슈화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했고, 전 세계에 있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주권과 재산을 테러공격의 목표로 설정했다. 특히 항공기 납치가 이들의 주요 테러전술이었다.

1970년 요르단을 중심으로 활동한 팔레스타인해방인민전선(Popular Front for the Liberation of Palestine : PELP)에 의해 4대의 항공기가 거의 동시에 피랍되었다. 그 중 3대는 요르단의 다슨(Dawson) 공군기지에서 파괴되었고(1970.9.3) 1대는 카이로 공항에서 폭파되었다. 팔레스타인해방인민전선과 일본 적군파가 연계체계를 형성하였으며, 1972년 5월

30일 일본 적군파가 로드공항에서 수류탄과 기관총을 난사하여 28명이 사망하고 78명이 부상당하는 대량살상테러가 일어났다.⁴²⁾ 1972년 9월 5일 검은 구월단(Black September) 조직에 의해 일어난 뮌헨올림픽 선수촌 테러사건은 로드공항 참사와 함께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1972년 전후하여 테러조직들은 초국가적인 제휴를 통해 협력 체제를 갖추기 시작했다. 연대의식으로 훈련, 무기 공급, 자금 지원, 피신처 제공 등의 협력관계가 테러조직 사이에 형성되면서 국제테러리즘 환경은 조성된 것이다. 1973년 7월 20일에 발생한 싱가포르에 있는 석유회사 쉘의 유류저장고 습격사건, 1975년 12월 21일에 일어난 빈의 OPEC 각료회의 점거사건 등은 팔레스타인해방인민전선 및 일본적군파와 서독의 바다 마인호프 조직과의 협력관계가 만들어낸 테러였다.

이후 1979년 소련의 아프카니스탄 침공으로 시작된 무자헤딘 등 무슬림 반군의 게릴라 활동과 소련군에 대한 테러공격은 아프카니스탄에 새로운 테러리즘 환경을 조성했으며 정치 이슈가 되었다. 같은 해 이란에 호메이니의 혁명정부가 수립되면서 성직자 중심의 새로운 이슬람원리주의환경이 조성되었다. 호메이니 정권은 PLO 등 이슬람 무장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였다. 레바논의 ‘지하드’와 ‘헤즈볼라’에 의한 베이루트의 차량폭탄공격이나 외국인 인질사건은 중동테러리즘의 국제화를 심화시켰다.

1960년대 PLO가 주로 이용한 테러전술은 항공기 납치였으나, 1980년대부터는 자살특공대에 의한 차량 폭탄테러 공격이 새로운 전술로 부각되었다. 특히 외국인에 대한 인질사건의 오늘날 국제정치의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유럽 테러단체의 테러전술은 폭파, 납치, 암살 등의 사회범죄적인 성격이 강했다.

중동테러리즘은 국제정치 환경으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았다. 미·소의 양

42) 그 이전인 1968년 7월에 팔레스타인 해방인민전선의 창설자인 조지 하바시 박사가 로마발 이스라엘의 로드공항 행 엘알 항공기를 납치하여 요르단 다스 공항에서 폭파시켰으며, 다른 한 대는 이집트 카이로에서 폭파시켰다. 그는 1976년 엔테베 공항사건, 1977년 모가디슈 공항사건에서도 서독적군파와 공조하는데 주역을 담당하였다. 1972년 5월 30일 로드공항 사건은 Eri Morris and Hoe (ed). *Terrorism : Threat and Response*(London : The Macmillan Press, 1987), pp.22-23.을 참조하고, 1976년 엔테베 공항사건은 조상현 편집(2008), 『세계전쟁사 디지털북』, 대전 : 육군군사연구소, 을 참조할 것.

국제제 하에서 소련과 쿠바 등 동구권은 독립을 원하는 대부분의 소수민족 또는 게릴라 조직에게 훈련, 재정, 무기를 공급했다. 더욱이 무기 판매 경쟁, 대중정보매체 발달, 유럽의 국경선 관리문제,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등은 중동테러리즘을 조장하는 요소가 되었으며 이란, 리비아, 이라크, 쿠바, 니카라과, 북한 등 이른바 테러지원 국가들에게 테러조직 간 합동 테러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었다.⁴³⁾

베이루트에서는 1983년부터 이란의 지원을 받은 테러리스트들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과 미국 및 서방유럽의 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자살폭탄차량에 의한 미 해병대 막사 공격, 프랑스 군부대 공격, 베이루트와 레바논 주재 미국 및 프랑스 대사관 공격을 시도하여 레바논을 국제테러리즘 온상으로 만들었다.⁴⁴⁾ 한편, 중동의 세속주의 정권에 대한 저항운동과 이에 따른 정부의 탄압은 중동의 일부 급진이슬람주의자들을 테러리스트로 변모시켰으며, 이슬람원리주의 테러를 일삼는 급진적인 사상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동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서구 식민 통치의 결과로 형성된 아랍 국가들의 다양한 정체성과 전통과의 단층성은 중동테러리즘 환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경우, 시온주의와 아라 민족주의간의 갈등은 오랜 역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심각한 테러리즘 환경으로 조성되고 있었다. 특히 영토를 빼앗기고 새로운 정치난민이 된 팔레스타인들은 테러리즘 환경 그 자체가 생존의 가치였다고 할 수 있다.

하나의 문화권이었던 아랍세계가 오스만 투르크제국 말기에 22개 국가 행위자로 분열되었으며 이들 아랍국가들 간의 지역분쟁으로 정치망명 또는 피신 및 테러지원 환경이 조성되었다. 폴리사리오 게릴라 문제는 모로코와 모리타니아 및 알제리간의 잠정적인 테러환경을 조성했고, 시리아와 이라크의 경합은 이념집권 정당인 ‘바스당’간의 경쟁 환경이 되었다. 더욱이 터키와 이라크 및 이란지역에 광범위하게 거주하고 있는 산악 유목민인 쿠르드족 문제는 걸프전쟁 이후 새로운 테러리즘 환경이 되고 있다. 쿠

43) Robert. B. Oakley(1985), “Terrorism : Overview and Development”, *US Department of State Bulletin*, Vol. 85, No. 2104, November, p.62.

44) 홍순남(2003), 『뉴욕에서 바그다드까지』, 서울 : 인간과 자연사, pp.112-115.

르드 문제는 팔레스타인 문제와 같은 정도의 정치적 중요성을 가진 국제 정치 이슈이며 국제테러리즘 요소이다.⁴⁵⁾ 1974년 이후 유엔은 PLO를 팔레스타인 아랍인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기구로 인정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PLO를 범죄조직인 테러리스트 집단으로 인정하여 새로운 테러리즘환경이 조성되었다. 또한 쿠르드족 문제도 매우 심각한 중동테러리즘 환경이 되고 있다.

특히, 1987년에 이스라엘의 아랍점령지인 동예루살렘과 웨스트뱅크에서 발생한 ‘인티파다’ 저항운동에 대해 이스라엘의 강경진압으로 인해 격려한 저항은 1993년 오슬로 협정 전까지 계속되었다. 전 아랍지역에 반 이스라엘, 반미 정서가 고조되어 테러리즘 환경이 조성되었다. 쿠르드족 문제는 터키, 시리아, 이라크, 이란의 경쟁적인 정치변수도 작용하여 지역 테러리즘을 유발시킬 수 있다. 또한 쿠르드족 문제와 관련된 지역테러리즘 환경은 쿠르드족 생존권 문제와 석유 문제, 그리고 주변국들의 갈등 상황으로 확대되어 국제 테러리즘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⁴⁶⁾

제 2 절 이슬람테러 환경과 양상 전망

1. 이슬람 문화와 테러 환경

아랍지역은 대부분이 건조기후대로, 유목과 오아시스 농경이 특징적인 생활양식으로 나타난다. 오아시스에서는 수원을 중심으로 의식주 생활에 결정적인 동반자 기능을 하는 낙타와 양의 사육이 주를 이루며, 대추야자를 주요한 식물성 식량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척박한 유목적 환경과 외부 공격에 노출된 불안한 오아시스 정주생활은 개체와 집단의 공동운명에 근거한 강력한 혈연 중심적 부족공동체를 형성시켰다. 집단공격과 공동방어라는 생존의 원리에 입각하여, 가족단위에서는 철저히 권위적인 가부장적

45) EUROPA(1991),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1991*, 37th ed., London : Europa Publications Ltd, pp.475-476.

46) 조상현(2009), “중동지역 분쟁의 원인과 중동 테러리즘 생성 배경에 관한 연구”, 서울벤처정보대학원 정치학 박사학위 논문, pp.201-211.

인 위계질서가 유지되고 공격이 최선의 방어가 되는 호전성과 용맹성이 사회성격을 규정하는 주된 요소가 된다.

1) 정교일치적 사회

이슬람교는 아랍인들의 종교, 법률, 사회, 정치사상의 토대를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 그 자체이며 그들의 의식구조의 핵심이 되고 있다. 즉 이슬람은 일종의 문화적 총체로서 생활 속에 완전히 합일되어 아랍인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아랍사회에서 정치와 종교를 일치화시켰다. 이슬람원리주의자들은 이슬람의 정교일치의 지배이데올로기는 개혁의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슬람 통치 이데올로기를 완벽한 것으로 보았고 서구식 정치체제를 비 이슬람적인 정권으로 여기게 되었다.

2) 아랍우월주의의 팽배

이슬람세계에서 아랍이 차지하는 비중은 20%를 넘지 못하지만 아랍사회에서 이슬람과 아랍주의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동일시되고, 아랍인 우월주의 의식이 팽배해 있다. 이는 이슬람이 아랍인 예언자 마호메트에 의해서 아라비아의 심장부 메카에서 아랍어로 계시되었다는 선형적 자부심에 근거하고 있다.

3) 변화의 거부와 반서구적 아랍민족주의

종교적인 우월감과 중세 이래 화려한 세계역사 무대를 주도했던 이슬람세계의 번성에도 불구하고, 20세기에 들어 아랍세계에 대한 계속되는 서구의 침탈과 예속으로 반서구적 사회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다. 오염되지 않은 전통과 역사적 영광을 회상하는 그들의 과거 지향적인 성격과 더불어, 문화적 열등국가로 간주하는 서구에 대한 저항의식이 이념적이기는 하지만 아랍민족주의로 결집되어 아랍사회를 강하게 지배하고 있다.⁴⁷⁾

47) 최재훈(2006), “중동 테러리즘과 급진 이슬람원리주의 역학관계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88.

2. 이슬람원리주의의 특성

이슬람원리주의의 본 의미는 ‘이슬람의 기본적인 원리원칙으로 회귀하는 것과 이슬람의 순수한 도덕과 윤리의 시대로 되돌아가는 것 그리고 신과 인간, 사회와 인간 사이의 공정한 균형 관계로 복귀하는 것’을 의미했다. 이에 대한 실천문제에 있어서 ‘침체된 현대 이슬람을 부흥시키는 길은 예언자 시대의 이슬람 사회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종교부흥 측면, ‘변화하는 시대정신에 맞게 이슬람의 근본 원리를 준수하고 이슬람의 재해석을 시도하며 이슬람세계의 점진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사회개혁 측면, 지하드 정신이 영향으로 ‘초기 이슬람으로의 회귀와 이슬람정신의 전 세계적 구현’이라는 구호아래 급진적이고 과격한 행동을 수행하는 정치 이념적 측면 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종교 부흥적 측면, 사회 개혁적 측면, 정치 이념적 측면으로 이슬람원리주의의 특성을 분석한다.

1) 종교 부흥적 특성

이슬람원리주의의 종교부흥적 특성을 보이는 운동으로는 아라비아 반도에서 일어난 외히비야운동과 수단의 마흐디야운동, 리비아의 사누시야운동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운동들은 종교 정화, 정교일치의 이슬람통치 이념, 무슬림공동체를 위한 장애요소의 척결 등의 공통점을 보인 이슬람 부흥운동의 일환이다.

이슬람부흥운동은 이슬람 전통 속에서 외세나 이교도로부터 이슬람을 지켜 부흥시키겠다는 일념에서 지하드 정신으로 한 저항운동이다. 이러한 운동은 본래의 이슬람으로 돌아가자는 구호를 통하여 이미 유입된 이교도와 외래의 관행을 무슬림 사회에서 제거하여 사회와 생활을 정화하는데 목적을 주고 있었다. 또한 8-10세기 동안에 확립된 이슬람 4대 법학파의 법체계와 관행을 무조건 맹종하기보다는 독자적 법 판단행위인 이즈티하드를 통해 이슬람의 개혁을 강조하고 이를 더 중시한 점이 이 운동의 특색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운동은 한 사람의 강력한 지도자의 출현과 열정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의 죽음과 함께 사라지거나 쇠퇴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슬람운동이 발발한 공통점은 당시 서구 열강의 무력 침략에 무슬림 지배층이 부패 무능하여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거나 또는 침략 세력과 야합한데 대한 반발이었으나 서구 세력과 그 도움을 받은 기존 정치 세력의 진압으로 실패하게 되었다.

와합의 이슬람 부흥운동과 그 밖의 여러 운동들은 서구의 침입에 대한 반발로서 나타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시기의 운동들은 반외세적 행동 양태 보다는 이슬람적 요소의 정화를 통해 외래적 요소를 이슬람에서 제거하여 순수한 이슬람으로 돌아가자는 종교 부흥적 성격이 더욱 강했다.

현대 급진이슬람원리주의 조직은 이러한 종교 부흥적 특성보다도 반외세적 행동 양태에 중심을 두어, 이 시기의 운동들을 자신들의 반외세 투쟁의 역사적 자료로 해석하고 있다.⁴⁸⁾

2) 사회 개혁적 특성

19세기 초에서 20세기 전반기에 이르는 150년 동안 서구문화가 중근동과 이슬람세계로 유입되자 무슬림들이 받은 문화적 충격은 매우 컸다. 선진화된 서구의 과학과 기술을 수용하여 무슬림 사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어 국가, 사회단체 및 교육기관 등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지식인, 관료, 군인, 학생 등 모든 사회 구성원들까지도 서구의 문물과 제도를 수용하고 모방하는 데 주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슬림 공동체의 사회, 정치, 경제 및 문화 분야의 발전속도는 매우 느려 서구와의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지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슬람원리주의자들은 서구식 개혁에 대한 새로운 각성을 하게 되었다. 서구의 선진 과학과 물질문명은 받아들이지만 그 정신문화와 사회제도는 모방하지 않고 이슬람 고유의 신학과 사상에 바탕을 둔 정치·사회 체제, 즉 초기 이슬람의 체제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20세기 전반기의 부흥적·개혁적 원리주의 운동을 계승 발전, 확산시키고 있는 기본 정신이 되었다.

48) 최재훈(2006), 상계 논문, p.88.

이슬람원리주의 사회 개혁적 특성은 서구의 제도와 과학기술의 실용적인 면을 받아들여 이슬람 사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서구 과학문명을 수용하여 침체된 이슬람사회를 개혁하고 보완하려는 이슬람원리주의자들은 이슬람의 원리원칙, 정교일치의 지배이데올로기는 완전한 것으로 보았고 서구식 정치체제를 도입한 정권을 비 이슬람적인 정권으로 여기게 되었다

3) 정치 이념적 특성

이슬람사회를 개혁하고 보완하는 이슬람원리주의자들은 이슬람의 정교일치의 지배이데올로기는 개혁의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슬람 통치이데올로기를 완벽한 것으로 보았고, 서구식 정치체제를 도입한 정권을 비 이슬람적인 정권으로 여기게 되었다. 이슬람원리주의자들은 비 이슬람적 요소를 지닌 정권과 그 정책에 반대하게 되었고, 정권과의 대립으로 이슬람원리주의는 정치 이념적 특성을 갖는 급진사상으로 변모되었다.

이슬람원리주의의 정치 이념적 급진사상은 집권층의 세속적 정책운용과 서구 편향주의적 행태에 반대하며 발생하였다. 이슬람 부흥운동이 이슬람의 종교적 측면을 내세웠고, 개혁운동이 토착적이며 전통적인 이슬람 요소와 서구의 문화적 요소와의 혼합에서 나왔다면, 정치 이념적 급진사상은 근대 서구식 민족국가의 출현에 대한 대응책으로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급진사상은 배타적·전통 수호적 측면을 지니게 되었다. 즉 이슬람원리주의의 급진사상은 외세를 배격하고 이슬람의 부흥운동과 개혁운동을 창조적으로 수용하며 이슬람의 지하드 개념으로 무장해 이슬람의 원리적 정치를 구현해 보려는 정치 이념적 특성이 강했다.

정치 이념적 급진사상은 이슬람원리주의 조직들이 정치세력화 과정에서 기존 정권과의 대립양상을 가져오는 이념적 기반으로 작용했으며 일부 급진 이슬람원리주의조직을 탄생하게 하는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일부 급진 이슬람원리주의자들은 지하드를 재해석하여 서구식 정치체제를 수용한 정권과 이슬람 세계를 위협하는 외세에 대해 지하드를 선포하고 무장활동을 정당화하려 하였다.

3. 이슬람테러 조직의 종류와 양상 전망

1) 이슬람테러 조직의 종류

(1) 알 카에다(Al Qaeda)

1979년 소련(현 러시아)군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였을 때 아랍 의용군으로 참전한 오사마 빈 라덴이 결성한 국제적인 테러 지원조직이다. 1991년 걸프전쟁이 일어나면서 반미 세력으로 전환한 이 조직은 빈 라덴의 막대한 자금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파키스탄·수단·필리핀·아프가니스탄·방글라데시·사우디아라비아는 물론, 미국·영국·캐나다 등 총 34개국에 달하는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철저한 점조직으로 움직이면서 계속 활동영역을 확장해 비(非)이슬람권 국가에까지 세력을 뻗치는 한편, 1998년에는 이집트의 이슬람원리주의 조직인 지하드와 이슬람교 과격단체들을 한데 묶어 ‘알 카에다 알 지하드’로 통합하였다.

‘유대인과 십자군에 대항하는 국제 이슬람전선’으로 일컬어지며, 조직원은 3,000~5,000명으로 추정되는데, 세계 각지의 산간이나 오지에서 은둔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부 소재지나 활동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것이 없다.

주요 목적은 비이슬람 국가의 제거 또는 이슬람 국가들의 영향력 확대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국적의 테러조직과 연결해 3억 달러에 달하는 빈 라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 각종 테러에 자금을 지원해 왔다.

특히 2001년 9월 11일 발생한 미국 맨해튼의 110층 쌍둥이 건물인 세계무역센터와 미국 국방부(펜타곤)에 대한 항공기 납치 자살테러사건의 배후 조종자가 이 조직의 수뇌인 빈 라덴으로 의심받으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또 이 테러사건을 실질적으로 지휘한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만 알 자와히리 역시 빈 라덴의 주요 추종자로 알려져 있다⁴⁹⁾

(2) 헤즈볼라(Hezbollah)

이란 정보기관의 배후 조정을 받는 약 3,000명의 대원을 보유한 중동

49) 김응수(2012), 전계서, pp.139-146.

최대의 테러 단체이다. 신의 당, 이슬람 지하드라고도 부른다. 호메이니의 이슬람 원리주의에 영향을 받아 1983년 이슬라믹 아말(Islamic Amal)과 레바논 지구당인 다와 파티(Dawa Patty)가 합쳐 창설되었고, 활동 본부는 레바논 동부 쪽 비카에 위치한다.

이슬람 공동체로서 전 중동을 통일하기 위해 시아파 이슬람교 이데올로기와 상반되는 개인·국가·민족 등을 대상으로 테러 활동을 한다. 주로 미국인과 미국 자산을 대상으로 테러를 자행, 1983년 10월 23일 베이루트 소재 미 해병대 사령부 건물 정면으로 헤즈볼라 자살 특공대가 약 1만 2000파운드의 폭약을 실은 벤츠 트럭을 몰고 돌진하여 미군 241명을 살상하였다. 1992년 3월 17일에는 유사한 방법으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소재 이스라엘 대사관을 침범하여 29명이 죽고 242명이 부상당하였다. 1983년 이후부터는 중동 지역에서 상징적인 테러 활동만 하고 있다.

(3) 하마스(Hamas)

이슬람 저항운동단체로, 아마드 야신(Ahmad Yasin)이 1987년 말에 창설하였다. 이 조직은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를 계속 통치하는데 저항한 인티파다(Intifada)라는 팔레스타인 민중봉기 시기에 PLO(Palestine Liberation Organization:팔레스타인해방기구)를 대신할 만한 이슬람 단체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하마스는 용기라는 의미로, 이슬람 수니파의 원리주의를 내세우는 조직체이다. 이들은 팔레스타인의 해방 및 이슬람 교리를 원리원칙대로 받드는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목표이다. 기본적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간의 평화협상을 반대하고, 이를 위한 테러활동을 벌인다.

이들의 조직은 정치·군사로 이원화되어 있다. 정치조직은 3개의 위원회로 된 중앙지도부 아래 활동분야별로 4개의 하위조직이 있다. 웨스트뱅크 지역에 3명의 지역책임자를 두고 있으며, 가자지구에 1명의 책임자를 두고 있다. 또 각 지역마다 지역 책임자 아래 세분화된 세포조직체제를 갖추고 있다. 군사조직으로는 에즈 에딘 알 카삼(Ezz Eddin al-Qassam)을 중심으로 모든 테러활동을 계획하고 자행한다.

해외에 망명한 팔레스타인인, 이란을 비롯한 여러 아랍국가의 후원자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영국·독일·벨기에·네덜란드 등 외국에도 자금 조달망을 갖추고 있다.⁵⁰⁾

(4) 무자헤딘(Muzahidin)

아랍어로 “성스러운 이슬람 전사”를 뜻하며, 모자헤딘(Mojahedin)·무자헤딘이라고도 한다. 보통 이슬람 국가의 반정부 단체나 무장 게릴라 조직이 스스로를 지칭하는 말로 쓰인다. 이란의 이슬람 사회주의 무장 게릴라 조직인 모자헤딘할크(Mojahedin Khalq)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무자헤딘은 1979년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이후, 산악지방을 근거지로 한 반정부 이슬람 저항 게릴라들의 활동이 두드러지면서 널리 알려졌다. 그뒤 1989년 소련군이 철수할 때까지 10년간 미국·파키스탄·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지원을 받으면서 소련군에 대항하였고, 소련은 결국 3만명에 달하는 희생자를 내고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1985년에는 “아프가니스탄 무자헤딘 이슬람동맹”을 결성하였고, 1992년 4월에는 친소 괴뢰 정권인 나지불라(Najibullah) 정권을 몰아내고 정권을 잡았다. 그러나 무자헤딘 내부에서도 수니파·시아파 등 종파가 서로 대립하거나 강경파인 근본주의파와 온건파로 갈리는 등 내부의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집권 4년 만인 1996년에 반군인 탈레반에게 수도 카불을 빼앗김으로써 다시 무장 게릴라 조직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후 무자헤딘은 아프가니스탄 북부동맹 등 반탈레반 동맹에 참가해 북부의 마자르 이 샤리프를 중심으로 게릴라전을 펼쳤다. 이후 2001년 9월 11일, 미국대폭발테러사건으로 미국이 탈레반 정권과 오사마 빈 라덴(Osama bin Laden)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자, 북부동맹군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 같은 해 11월 말 탈레반을 수도 카불에서 몰아내는 데 성공하였다.

북부동맹의 실질적인 지도자는 무자헤딘 정권 때 대통령을 지낸 부르하누딘 랍바니(Burhanuddin Rabbani)로, 2001년 12월 22일 출범한 6개월 시한부 과도정부의 핵심 요직을 차지했지만 무자헤딘 자체는 이미 여러

50) 박기범·강민완·진용태(2006), “이슬람 원리주의를 통해 본 중동지역테러리즘의 이해”, 『경호경비연구』 제12호, 한국경호학회, p.165.

파로 갈라져 있어 한마디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 무자헤딘 가운데 북부동맹에 속하지 않은 조직도 있고, 탈레반에 가담한 조직도 있기 때문이다. 빈 라덴 역시 아프간사태 때에는 무자헤딘의 일원으로 소련에 대항해 싸우기도 하였다.⁵¹⁾

(5) 탈레반(Taleban)

1994년 10월, 2만 5000여 명의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아프가니스탄 남부 칸다하르에서 결성한 수니파 무장 이슬람 정치조직을 가리킨다. 결성 당시부터 군정세력으로 출발해 1994년에 이미 아프가니스탄 국토의 80% 정도를 장악한 뒤 이듬해 수도 카불(Kabul)을 점령, 14년간 계속된 아프가니스탄 내전과 4년 동안의 모자헤딘(Mojahedin:무장 게릴라 조직) 권력투쟁을 종식시켰다. 이어 과도정부인 이슬람공화국을 선포하면서 결속력 있는 세력으로 등장, 아프가니스탄 내 반군 조직을 무장해제 시킨 뒤 약탈과 강도, 부정부패를 없애는 데 힘을 쏟는 한편, 일상 상업 활동을 재개함으로써 전통적인 아프가니스탄 가문의 지지를 얻었다. 그러나 내전이 계속되면서 국가 접수가 어려워지자 지역 지휘관들과 전략적 협정을 체결, 지역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위법 사항과 이에 따른 각종 인권침해를 도외시함으로써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슬람교에 대한 엄격한 해석으로 인해 갈수록 사회 차별이 심해지고, 여학교 폐쇄, 텔레비전 금지, 가혹한 이슬람식 처벌제도 부활, 아동 학대 등 많은 부작용을 낳음으로써 국제사회의 비난을 샀다. 또 2001년 3월에는 군대를 동원해 로켓과 탱크 등으로 아프가니스탄 내 불교 유적과 불상들을 부수는 등 유례없는 유적 파괴 행위를 공개적으로 일삼기도 하였다.

더욱이 2001년 9월 11일 발생한 미국대폭발테러사건의 배후자인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의 국제 테러리스트 오사마 빈 라덴(Osama bin Laden)과 그의 추종 조직인 알 카에다(Al-Queda)를 숨겨둔 채 미국에 인도하지 않음으로써 미국과 동맹국들의 반발을 산 끝에 결국 아프가니스탄을 전쟁으로 이끌었다. 같은 해 10월 7일부터 시작된 미군과 영국군의 합동 공격으

51) 김수민·윤황(2009), “북한 정권과 중동 테러단체의 테러 유형과 특징”, 『한국동북아논총』 제 53집, 한국동북아학회, pp.73-74.

로 인해 대부분의 공군기지와 지휘본부, 방공망과 방송시설이 파괴되었음에도 여전히 빈 라덴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 항쟁 의지를 밝히면서 성전(지하드)을 추구하였다. 2001년 10월 말 아프가니스탄에서는 15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였고, 미국과 동맹국들의 지원을 받고 있는 북부동맹의 반격도 치열해 졌다.⁵²⁾

2) 이슬람 테러 양상 전망

(1) 지역거점 단위의 테러리즘의 부상

빈 라덴의 죽음으로 알 카에다 핵심세력은 물리적으로 쇠퇴하는 반면, 그의 죽음에 대한 분노를 명분으로 하는 지역 단위의 ‘프랜차이즈’ 및 개인 단위의 테러리즘은 오히려 더욱 발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프랜차이즈 테러리즘 중 핵심은 ‘알 카에다 아라비아’로서 미국 시민권을 가진 안와르 알 아울라키 등 급진적 지도자들이 주축이 되어 개인 단위의 불만 세력을 포섭하여 ‘생활테러’를 추구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이들은 빈 라덴의 존재를 아이콘화하여 그 이념적 유지를 지속시키면서 미디어와 인터넷, 특히 소셜 서비스 네트워크(SNS : 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해 개인 단위의 테러 저변을 확대하여 이를 프랜차이즈 테러리즘과 효율적으로 연계시키는 방향을 추구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빈 라덴을 표적으로 하는 대테러 작전보다 훨씬 더 어려운 대테러전이 될 것이다.

최근 아랍권 정치변동으로 인해 알 카에다 아라비아 및 알 카에다 마그레브 등을 강압적으로 통제했던 리비아, 예멘, 이집트 중 권위주의 정권의 통제력이 약화됨에 따라 급진적 지도자들의 세력 확대가 확실한 상황이다. 이들은 본래 빈 라덴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와 지원을 받았다기 보다는 이념적 동지 관계였으므로 사실상 빈 라덴의 부재로 인한 물리적 투쟁력의 실질적 약화 가능성은 거의 없다.

(2) 자스민 혁명 이후 이슬람 정치세력의 제도화

이집트의 정치변동으로 인해 무바라크 정권이 붕괴된 이후 권력 공백

52) 김수민·윤황(2009), 전개논문, p.74.

상태에서 최근 급진 이슬람 단체인 무슬림 형제단의 영향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알 카에다 지역 단위 세력의 부상과 함께 이슬람 급진세력이 제도권으로 진입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무슬림 형제단은 ‘자유와 정의당’을 결성하여 제도권으로 진입을 시도 중이다.

레바논 시아파 정파인 헤즈볼라와 팔레스타인 자치정보의 하마스 등도 제도화되어 정치권으로 진입했으며, 유사한 맥락에서 최근 정치적 혼란기에 있는 아랍 사회에 이슬람 급진세력이 침투할 가능성도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⁵³⁾

(3) 이란식 이슬람 정치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집중 증가

핵 개발 논란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점점 증하는바, 빈 라덴의 부재는 상징적으로 가장 위협적인 구체적 주적으로 이란이 부상할 가능성이 커짐을 의미한다.

이란 이슬람 법학자 통치체제는 글로벌 지하드와는 거리가 있는 혁명노선을 취하고 있으나, 미국과 서구의 인식론은 이란을 오사마 빈 라덴을 대체하는 새로운 적대 세력으로 상정할 가능성이 높다.

제 3 절 북한 테러리즘의 양상과 실태 고찰

1. 국가지원 테러리즘과 전략

1970년대 미국은 주로 독재자들의 무단통치가 횡행하는 제 3세계의 일부 국가들을 지칭하여 ‘부랑자 국가’ 또는 ‘불법적 무단국가’라는 용어를 간헐적으로 사용하였다.⁵⁴⁾ 부랑자 국가 대해 미국의 압력이 가해지자 군사적 대미의존에서 벗어나려는 수단으로 핵무기에 관심을 보이는 현상이

53) 인남식(2011), “최근 이슬람 테러리즘 동향과 미국의 대테러 정책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원, pp.4-6.

54) 이디아민, 폴 포트 정권 등이 이에 해당하였으며 인종차별이 심했던 남아공화국과 70년대 중반 유신독재 시절 한국에 대해서도 이 개념이 사용되었다.

나타났고 불량국가에 대한 정의도 국내통치 형태에서 군사적 독자성의 추구를 강조하는 향으로 바뀌기 시작하였다.

1980년 이후 6차례의 분쟁에 탄도미사일이 정치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었고 이들 국가들은 대부분 불량국가의 범주에 들어간다. 이 때문에 독재자들은 국내 통치행태의 문제점에 착안했던 용어인 70년대의 ‘부랑자 국가’는 일부 독재중권이 대량살상무기의 개발로 야기되는 대외적 안보교란 요인에 천착한 90년대의 불량국가 독트린이 먹혀들었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북한의 핵개발 의혹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였다.

북한의 경우 이란,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수단 등 지난해까지의 단골 국가들과 함께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북한을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문제는 클린턴 정권 말기인 2000년 10월 북한 국방위원회 조명록 부위원장의 방미와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의 답방당시 북미 간 최대현안으로 부상했으나 본 보고서를 통해 변동사항이 없음이 확인되었다.

이 보고서는 지난 2000년 북한은 3차계에 걸친 테러방지회담에 참여하여 북한이 테러에 반대하고 국제적인 반테러 활동에 대한 국제적 조치들을 지지할 것임을 재천명하였으나 북한은 지난 1970년 일본 항공기를 북한으로 납치한 적군과 요원들에게 피난처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반테러성명을 발표하는 등 일부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긴 했으나 적군과 보호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테러지원국에서 제외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또한 이 보고서는 필리핀 정보관리들은 ‘모로회 교해방전선’이 중동으로부터 제공받는 자금으로 북한에서 무기를 구입했다고 밝히면서 테러단체에 대한 무기판매를 테러지원국 지정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는 이란도 회교과격파 단체인 헤즈볼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하마스와 지하드 단체들을 지원하는 등 테러지원 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하는 국가로 규정하였다.

북한의 테러전략은 1974년부터 김정일이 지휘해 왔으며 테러 관련 기관으로는 노동당 산하 4개부서, 즉 사회문화부, 통일전선부, 대외정보조사부, 작전부와 인민무력부 경찰국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 북한은 테러표방

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1975년 10월 출간한 ‘남조선 혁명과 조국통일이론’으로 이 이론에 의하면 “결정적 투쟁은 오직 폭력적 방법에 의해서만 승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함으로써 한국의 공산화와 민주주의 국가파괴를 위한 테러리즘을 혁명적 행위로 정당화시키고 있다.⁵⁵⁾

2001년 미 행정부는 “확산: 위협과 대응”이라는 보고서를 통하여 21세기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초강대국 패러독스’로 표현하고 재래식 군비에서 미국의 우위에 대항할 수 없는 적대 국가들이 NBC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획득하여 미국의 아킬레스건인 비재래식·비대칭수단을 찾고 있다고 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북한이 중국보다 앞서 위협국가로 올라 있으며 9·11테러 참사 이후 미국은 불량국가들에 대해 의구심을 강조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비대칭위협이 대중적으로 인정되었음을 강조, 이에 대한 대처는 주요 전역전쟁, 소규모 긴급 우발사태, 테러리즘에 대처한다는 것으로 MD는 필수요소임을 강조하고 이에 따라 테러집단과 불량국가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생기고 본토방어에 대한 인식이 급속히 확산되었다. 단순히 불량국가의 미사일 위협에 머무르지 않고 비대칭 안보위협(asymmetric threats)에 핵, 미사일, 생화학무기의 보유와 확산은 물론 재래식 군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비대칭 위협에 북한을 대입시키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9·11테러사건 이후 더욱 강화되고 있다. ⁵⁶⁾

2. 예상되는 북한의 테러 유형

북한은 특수요원을 이용하여 남한에 대하여 자행해 온 청와대 기습, 미얀마 아웅산 폭파, KAL기 폭파 등과 같은 수많은 테러들을 자행해 왔다. 이 절에서는 지금까지 북한이 자행한 테러를 바탕으로 향후 예상되는 테러 유형을 살펴본다.

55) 국방부(2001), “북한의 테러유형과 역사적 교훈”, 『군사』 제44호, 군사편찬연구소, pp.32-36

56) 이태윤(2010), 전계서, pp.358-361.

1) 요인 암살

요인 암살은 숙련된 테러리스트 단독 혹은 두 세 명이 한 팀으로 구성되어 실행하는 방법으로서 다른 형태의 테러리즘보다 실행하기가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에 테러리스트들이 선호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요인 암살은 남한에 대하여 지금까지 북한이 시도한 전형적인 테러리즘의 한 형태이다. 북한이 남한에 대하여 자행한 첫 번째의 요인 암살 기도는 1968년 1월 21일에 대통령 암살 기도로 일명 김신조 사건이다

북한의 특수부대에 소속된 테러리스트 51명이 청와대를 기습하여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할 목적으로 남파되었다. 이들은 청와대 근처까지 접근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우리 군과 경찰에 의해 최종 목표인 대통령 암살은 저지되었고 김신조를 제외한 50명의 테러리스트는 사살되었다. 북한의 테러리즘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68명이 목숨을 잃었고 66명이 부상을 당했다.

두 번째 북한의 대통령 암살기도는 1970년 6월 6일 현충일에 국립묘지를 찾아 추도사를 할 예정이던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북한은 3명의 테러리스트들을 남파시켰으며 이들은 국립묘지 입구 현충문에 원거리 조종폭탄을 설치했다. 그러나 북한의 테러리스트들은 설치한 원거리 폭탄에 대한 조작 실수로 인하여 계획된 것 보다 폭탄이 사전에 폭발되어 다행스럽게도 박대통령의 암살은 미수에 그쳤다.

세 번째의 대통령 암살기도는 1974년 8월 15일 광복절행사장에서 발생했다. 광복절을 맞아 박정희 대통령이 국립극장에서 기념 식사를 하는 동안 북한이 포섭한 재일동포 문세광이 행사장에서 권총으로 박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저격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이 사건으로 박대통령은 무사했지만 오히려 행사장에 함께 참석했던 대통령 부인 육영수여사가 저격을 당하여 사망하는 비운을 맞이했다.

네 번째 대통령 암살 기도는 1983년 10월 9일 미얀마 아웅산 묘소 폭파사건이었다. 당시 북한의 인민무력부 정찰국 산하의 특수부대 소속 테러리스트 3명은 원거리 조정 폭탄을 가지고 서남아·대양주 6개국 공식 순방국 중에서 첫 번째 국가인 미얀마를 방문 중인 전두환 대통령과 일행에 대한 암살을 시도했다. 다행히도 당시 대통령은 예정보다 늦게 행사장에

도착하여 암살을 모면했지만 현장에서 폭탄의 폭발로 인하여 당일 행사장에 참석했던 4명의 한국 정부측 장관을 포함한 17명이 목숨을 잃었다.⁵⁷⁾

그러나 북한은 국제적으로 테러리즘국가라는 그러한 오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남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국가 원수를 암살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해 왔다. 특히 아웅산 사건이후에도 북한이 제2의 아웅산 사건을 기도했음이 알려져 충격을 던져 주고 있다. 홍콩에서 발간되는 중국 전문지 당대(當代)는 중국이 한국과 수교한데 불만을 품고 북한이 3명의 특수공작원을 파견해 1994년 3월 중국을 처음 방문한 김영삼 대통령을 암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김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을 통해서 북한의 행동 양태를 분석해보면,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이 겉으로 남북고위급 회담, 스포츠교류 등 위장평화공세를 취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무력 적화통일의 기반 조성을 위해 테러리즘정책을 강화해 왔음을 확인 할 수가 있다.

2) 항공테러리즘

북한의 대남 테러리즘은 요인 암살 기도에 그치지 않고 민간항공기와 이를 이용하는 무고한 남한 국민을 대상으로도 자행하였다. 북한이 민간항공기를 납치하거나 공중에서 폭파하는 행위를 자행한 것은 결코 최근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실이다. 최초의 항공기 납치는 1958년에 승무원과 승객 32명을 태우고 부산에서 서울로 오던 국내선 민항기를 북한의 조종을 받고 있던 테러리스트가 공중에서 납치하여 강제로 월북시켰다. 그 후 10여년이 흐른 1969년 12월에는 북한 테러리스트가 강릉에서 서울로 비행하던 민항기를 또 다시 북한으로 납치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항공기 납치 사건에서 항공기와 함께 납치된 51명의 승객과 승무원 중 39명만이 납북 66일 만에 송환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승객과 승무원 12명과 항공기 기체를 아무런 이유 없이 지금까지 억류하고 있다.

이후 북한에 의한 항공 테러리즘은 1980년대 중반까지 잠잠한 휴면상

57) 차두현(2008), “한국의 테러리즘 대응방안”, 『국제정치논총』 제4집, 한국국제정치학회, pp.182-183.

태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을 일주일 앞두고 서울 김포공항에서 강력한 폭발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폭발사고로 공항 일부 시설이 파괴되었고 3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의 범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국내외 정세를 분석해 볼 때 북한이 파견한 테러리스트 혹은 북한의 조종을 받은 국내외 테러리스트가 외국인의 왕래가 많은 한국의 관문인 김포 국제공항에서 무고한 민간인들을 무차별하게 살상하여 한국의 치안상태가 극히 불안하다는 인상을 국제사회에 심어줌으로써 서울에서 열리는 1986년 아시안게임 참가를 저지하고, 더 나아가 인류의 제전인 1988년의 서울 올림픽을 방해 할 목적으로 저질러진 사건이었다.

지금까지 북한이 저지른 대남 테러리즘 가운데 가장 잔인한 사건은 김현희에 의한 대한항공 858기에 대한 공중폭파 사건이었다. 1987년 11월 29일 아부다비를 출발해 방콕을 거쳐 서울로 향하던 대한항공 858기가 미얀마 랑군의 지상관제소와 최종 교신 후 항로상에서 갑자기 사라진 사건이 발생했다. 갑작스런 항공기의 실종 소식을 접한 한국 정부는 기상이변이나 기체 이상 보고가 없었던 점 등의 상황 분석을 토대로 북한에 의한 테러리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미얀마와 태국 등 관계국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수색작업을 벌인 결과 1987년 12월 3일 안다만 해상에서 항공기 잔해를 발견하기에 이르렀다. 한국 수사당국은 즉시 탑승자 조사를 하였고, 특히 아부다비에서 내린 15명의 승객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일본인 남·여 여행객으로 위장한 신니치하치마와 마유미하치야를 주목하고 레바논 정부에 신병 확인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레바논 정부는 출국을 기도하던 이들을 공항에서 체포하기에 이르렀다. 대한항공 858기 공중폭파 사건은 김정일이 직접지시 한 사건이며, 항공기 폭파를 통해서 남한 내의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여 1987년 12월로 예정되어 있던 대통령 선거를 방해하고, 더 나아가 '88 서울올림픽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행된 것임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면 북한은 어떠한 반인륜적, 반민족적 테러리즘도 서슴없이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전형적인 사례였다.⁵⁸⁾

3) 민간인 납치 및 어선 납북

북한은 한국인과 외국인을 납치하여 이들을 테러리즘 수출과 공산주의 혁명 수출의 전위대로 이용하고 있다. 1978년의 영화감독 신상옥씨와 영화배우 최은희씨 부부의 납치, 음악가인 백건우씨와 윤정희씨 부부납치미수, 대한항공 폭파범 김현희에게 일본어를 가르쳤던 일본 여인의 납치 등 그 밖에도 세계 각처에서 간첩 교육에 필요한 외국인을 다수 납치하여 억류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북한을 탈출한 신상옥과 최은희 부부의 증언에 의해서 입증된 바 있다. 북한은 또한 1958년 이후 1990년 초까지 백령도 공해상에서 어선수원 32호 납치와 해왕호 납치 등을 포함하여 거의 매년 동해와 서해에서 어로 중인한국어선 과선원을 납치하여 인질로 억류하면서 철저한 세뇌교육과 협박을 통해 간첩 임무를 부여해 남과하기도 했다.

4) 주요 시설물에 대한 사보타지

각종 폭발물을 은밀하게 장치하고 이를 폭파하여 인명을 살상하거나 주요 시설물에 포함된 장비 및 건물을 파괴시키는 행위는 고전적인 테러리즘의 한 형태이다. 최근에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각종 폭발물도 급격한 발전을 보여 왔을 뿐만 아니라 손쉽게 구할 수 있어 폭발물을 이용한 주요 시설물에 대한 사보타지는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 미국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지하주차장 폭파사건은 이러한 유형의 테러리즘 공격의 심각성을 던져준 사건이었다. 테러리스트 단체들은 주요시설물에 대한 사보타지를 통해 특정 국가에 경제적 손실을 입히거나 사회적인 불안과 공포감을 조성하여 국민들의 대정부 불신감을 유도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삼고 있다.

북한은 1967년 9월 5일에 경원선 열차 폭파사건을 일으킨바 있고, 나흘 후에 서울-문산간 철도 폭파사건을 기도하기도 하였다. 북한의 남한내 주요 시설에 대한 공격은 김정일이 북한 내부에서 영향력을 나타내기 시작한 1980년대 들어 수적으로 급격하게 늘어났으며 그 피해의 심각성도 매우 높아졌다. 또한 1983년 대구 미 문화원 폭파사건과 1986년의 김포

58) 김수민·윤황(2009), 전개논문, pp.97-99.

공항 폭파사건 등은 북한이 남한에 대하여 자행한 주요 시설물에 대한 사보타지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983년 7월 29일 북한공작원들이 선박을 이용하여 감행한 월성지역 침투기도는 주요 시설물에 대한 사보타지로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북한이 의도한 목적은 월성에 있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사보타지였으며, 만약 북한의 기습공격이 성공했다면 체르노빌 원전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결과는 심각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월성 침투기도에서 볼수 있듯이 북한은 그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비인간적인 공격도 서슴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대의 고도산업사회에서는 가스나 유류저장소, 통신시설, 국가 주요 기간 산업시설, 대형 공업단지 및 핵발전소 등이 일반에게 공개되어 목표 선정이 용이하며 북한이 남한 내부의 주요 시설물에 대한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

5) 생화학무기

생화학무기는 대량살상무기이지만 저비용 고효율의 매혹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테러리스트들은 이러한 무기 사용을 선호한다. 생화학무기의 공격 목표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는 참담한 것이다. 만약 생화학무기가 사용된다면 희생자는 사람과 동식물에 대한 피해는 물론 자연환경에 대한 심각한 파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⁵⁹⁾ 생물무기, 특히 탄저균 1kg은 핵폭탄 1kg의 치사력과 유사하기 때문에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나라의 핵폭탄에 비유될 정도이다. 도심 1평방킬로미터를 파괴하는데 비행기 폭격은 2,000달러가 들지만 핵 무기는 800달러, 화학무기는 600달러가 들지만 생물무기는 단 1달러면 충분하다고 한다.

존볼튼 미국국무부차관은 제네바에서 개막된 생물무기협약 제5차 평가회의 기조연설에서 “북한은 세균전무기를 계속 개발·생산하고 있으며,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생물무기의 대량 생산능력을 갖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 동안 북한의 생화학무기에 대한 위협은 국내외적으로 꾸

59) 김응수(2011), 『21세기 북한의 이해』, 경기 : 북코리아, pp.167-168.

준히 제기돼 왔으며 불튼차관이 북한의 생물무기에 대한 위협을 공식적으로 거론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생화학무기와 이를 테러리즘에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다시 한 번 평가를 해야 할 것이다.

9·11 테러사태이후에 뉴스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미국에서 탄저균으로 인한 사회적 동요와 마비사태를 우리는 직접 목격했다. 세계무역센터 폭파 이후에 탄저균소동으로 인하여 미국 연방의사당과 워싱턴의 우편 업무를 마비시켰던 것은 불과 2g의 탄저균가루였다.⁶⁰⁾는 것을 고려하면 생물무기의 위력을 실감할 수가 있다. 이처럼 막대한 심리적 효과를 가진 생화학무기가 테러리즘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생화학무기는 우리의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요소임에 틀림이 없다. 북한이 생물무기 개발을 규제하는 협약(BWC)에 가입했으면서도 세균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제안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안보에도 크게 위협적이다.

이러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재래식 무기의 감축·철거뿐만 아니라 연간 5000톤에 이르는 생화학무기의 생산과 실전 배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금 온 세계는 탄저균을 비롯한 생화학무기에 의한 테러리즘의 가능성 때문에 공포에 떨고 있다. 이러한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북한의 핵사찰 수용과 더불어 생화학무기 생산에 대한 사찰과 검증을 수용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긍정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한, 북한은 테러지원국, 테러 당사국의 명예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⁶¹⁾ 또한 북한은 핵무기 제조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1~2개의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핵물질들이 이미 확보했으나 폭발장치 제조기술 수준이 낮아 이를 무기화하기까지 최소 수 십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방부가 발간한‘대량살상무기문답백과’는 북한이 핵폭탄 1~2개의 제조가 가능한 10~2kg의 핵물질(플루토늄·u)을 추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술했다.⁶²⁾

60) 조선일보, ‘마마생물 무기로 부활’, 2002. 5. 6. p. 6.

61) “북한테러리즘과 DJ정권의 대응”, www.hanbal.com/review/review108/(검색일: 2012.5.24.)

62) “북 핵폭탄 1, 2개 제조 물질 확보 추정”, /국방관련기사/ 이 책자는 또 북한이 '83년부터 고성능폭발실험을 70여 차례 실시했으며 '93~'98년 핵실험의 전단계인 완제품

3. 북한 테러리즘의 특성

21세기의 불량국가란 자국민 억압, 국제 테러리즘 촉진, 대량살상무기 추구의 성향을 지닌 국가들을 말한다. 냉정종식 후 ‘불량국가’라는 용어가 이란, 북한 등에 대한 통칭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1994년 1월 당시 클린턴 대통령이 브뤼셀에서 불량국가로부터의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을 강조하면서부터였다. 미국은 테러리즘 지원국가로 북한을 포함한 7개국을 지정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은 헤드볼라, 하마스, 지하드 등 테러단체를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⁶³⁾

북한이 1950년대부터 자행해 왔고 또 1988년 이후 미국이 테러지원국가로 지정하고 해제한 바 있는 북한 테러리즘의 특징을 시기별로 그 목적, 테러 대상과 범위, 특징 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첫째, 먼저 해방 이후부터 한국전쟁 발발 이전까지의 시기는 미 군정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2년간이 포함되며 이시기에는 제주 4·3사건, 여수 10·19사건, 이승만 대통령의 저격사건을 포함한 남한 내 주요 요인암살 기도였다. 북한은 비밀공산당원이나 남파된 간첩을 통해 공산정권수립에 궁극적 목적을 두고 이에 반대하는 남한 내 반공세력에 대한 테러 및 전복활동을 실시하였다.

둘째, 한국전쟁이 포함된 1950년대에 북한은 한반도 분단체제가 고착된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테러를 시작한 시기이다. 기간 중 주요테러는 1958년의 항공기 납치 사건을 들 수 있다. 이 시기 중 주요 테러는 1958년의 항공기 납치 사건을 들 수 있다. 이 시기 테러의 특징은 북한이 한국전쟁의 패인을 분석하면서 그 대안으로 테러리즘의 기반을 강화했다는 점이다. 기간 동안 북한은 테러를 위해 공작원을 남파하여 비행기를 납치 등을 주도하여 남한사회에 커다란 혼란을 초래하였다.

셋째, 1960년대는 한국이 경제발전을 추진하고 자주국방체제를 마련하는 시기였다. 북한은 1960년부터 테러를 노동당의 주요 사업으로 계획하

고폭장치 실험까지 했다고 분석했다. 동아일보2001. 12. 19일자참조.

63) 정은숙(2001), 『불량국가와 대량살상무기 확산』, 서울 : 세종정책연구, pp.5-6.

여 추진하였다. 이 시기는 북한이 테러리즘 노선을 분명히 한 시기로 그 배경에는 테러전을 게릴라전과 함께 무장 폭력봉기를 혁명전쟁으로 확대시킨 결정적 요소로 보았기 때문이다.⁶⁴⁾

북한은 한국의 경제 발전상을 보고 위기감 속에서 남한의 혼란과 무력적화통일을 조기 실현시키기 위해 대통령 암살, 한·미 연합방위태세 약화, 후방 지역 교란 목적의 청와대 기습, 미 정보함인 뚜에블로호 납치, 울진·삼척무장공비 침투 등의 전쟁수준의 테러 행위를 자행하였다.

넷째, 1970년대는 남북한 간의 경제발전의 격차가 심화되고 한국의 자주국방체제가 확립되는 시기였다. 이 시기 북한은 테러 행위는 최고조에 달하였다. 특수공자원과 재일교포를 이용하여 남한 국가 지도체제 말살과 정치혼란을 야기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국립현충문 폭파사건과 8·15광복절 대통령 저격을 시도하였다.

다섯째 1980년대도 북한은 대남테러는 1970년대의 연장선에서 극치를 이루었다. 1981년 1983년 두 차례에 걸쳐 캐나다와 미얀마를 방문한 전두환 대통령을 암살하려 하였다. 또한 86아시안 및 88올림픽 개최를 방해하기 위해 김포공항 폭파사건과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을 일으켰다.

이처럼 북한이 테러를 자행했던 것은 그들이 테러리즘을 대남 전략·전술의 일환으로 사용했던 것이다. 또한 북한이 테러리즘을 선호한 이유 중의 하나는 테러전략이 상대적으로 위험부담이 적고 배후가 쉽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의 테러가 다른 국제테러조직이나 단체와 상이한 점은 국가의 기관들이 직접 나서서 테러를 전담하고 집행하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9·11테러 사태를 계기로 북미관계의 전반적 상황이 악화된 것은 사실이다. 최근에는 미국이 북한의 생화학 무기검정 문제까지 들고 나와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대량살상무기를 추구하는 대부분의 불량국가가 중동국가인 데 반하여 북한만이 아시아 국가이다. 현재 단기 핵 확산의 가능성을

64) 북한은 1961년 9월 제4차 노동당 대회 결의서에서 대남테러를 통해 한반도를 적화통일한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고, 1962년 노동당 제4기 8차 전원회의와 1965년 노동당 창설 20주년에 즈음한 김일성 축사 및 1966년 제14차 전원회의를 통해 테러노선을 분명히 하였다.

소지한 것으로 간주되는 국가도 북한, 이란, 이라크, 리비아 4개국이다. 소위 불량국가나 국제 테러단체로의 확산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하는 일은 결코 명예롭지 못한 일이다.

4. 북한 테러리즘의 조직 및 기구

1) 북한의 테러리즘 조직

북한의 테러리즘 조직은 테러리즘을 위한 책임조직과 행동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수부대와 같은 성격의 조직인 북한의 테러리즘 책임조직은 때에 따라 테러리즘 행동조직과 분리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나 이 두 조직은 실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북한의 테러리즘수행을 위한 조직이 대남공작의 환경에 따라 약간씩 변화되어 왔으나 전체적인 관장은 노동당이 담당하고 행동조직은 인민무력부가 관장하지만 기타 여러 조직들이 서로 유기적인 연계를 갖고 테러리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술테러리즘 책임조직으로서는 북한노동당의 통일전선부, 통일전선부에서는 직접침투, 해외공작, 대일공작, 대남심리전 등을 담당하고, 대외연락부는 공작원을 양성, 훈련, 침투임무를 수행하며, 조사부는 공작원들의 기본교육 및 안내, 호송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또한 정치보위부와 사회안전부에서는 북한 내의 테러리즘을 지휘하며, 인민무력부는 대남테러리즘 및 해외 테러리즘을 자행하거나 지원한다.

2) 북한의 테러리즘 기구

대남 테러리즘과 해외 테러리즘을 담당하는 기구는 노동당이 계획, 지휘를 담당하고 인민무력부가 실행한다. 즉 해외 테러리즘활동 및 지원활동은 노동당비서국의 대남사업담당 비서의 지휘통제하에서 수행되는데 그 예하에는 한국내의 호응 세력과 해외호응세력 및 국제테러리즘조직과의 연계 하에 대남 및 해외 테러리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 통일전선부

통일전선부는 反韓 통일전선 형성을 위해 해외교포, 외국인 그리고 국내 반정부인사 등을 포함하므로 남한 내 지원세력 확보를 주 임무로 하고 있다. 통일전선부는 1979년 대남 공작기구를 개편하면서 신설한 부서이지만 이 기구의 신설로 북한의 대남공작은 연락부 중심체제에서 통일전선부 중심으로 바뀌었다. 통일전선부에서 실시하는 주요임무는 직접침투, 해외공작, 재일공작, 대남심리전, 反韓 통일전선형성, 해외교포, 외국인 그리고 국내 반정부인사를 포섭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통일전선부의 조직을 살펴보면, 3,000여명 정도의요원에 해외담당과 등 약 15개과로 편성되어 있고, 유령 흑색정당인 “통일혁명당”을 관장하고 있으며 위장·평화공세 때마다 자주 등장시키는 “조국평화통일협의회”라는 위장단체도 여기에 속해 있다.⁶⁵⁾

(2) 대외 연락부

남과 간첩업무를 총괄하는 대외 연락부는 그 예하에 지역공작, 정당 및 군부의 해외공작, 공작전술연구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두고 있다. 대외연락부는 공작원을 선발, 양성, 훈련, 침투시키는 임무와 지하당 구축 공작을 담당하고 있으며 450여명 정도의 조종요원으로 대남공작과 등 16개과로 편성되어 있다. 특히 해외공작부는 해외 교포교섭 및 침투임무를 맡고 있는데 외항선박을 가지고 무역을 위장하여 국제테러리스트들과 공작장비를 수송하면서 테러리즘을 수행하기 위해 공작금을 벌어들이는 임무도 수행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북한소유의 외항선박 50여척 가운데 20여척이 대외연락부 소속이며 1983년 10월 9일 미얀마 아웅산 폭파사건 때의 “동건애국호”도 대외연락부 소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 노동당 조사부(작전부)

조사부에 소속된 구성원은 약 3,500여명이며, 남과공작원과 전투원(안내원 및 공작원요원)들에 대한 정규 기본교육과 훈련을 전담하고 '김일성

65) 국방부(2001), “북한의 테러유형과 역사적 교훈”, 『군사』 제 44호, 군사편찬연구, pp.36-37

정치군사대학'과 대남 간첩파견지인 2개의 육상연락소와 4개의 해상연락소(남포, 해주, 청진, 원산)가 조사부 소관이다. 대남침투공작에서 해상을 기본선으로 삼고 있는 조건에서 이들 조사부 요원들은 간첩 호송작전 뿐 아니라 침투루트의 개척, 확인, 답사 등을 위해 우리나라의 동·서·남해안에 대한 접안공작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특히 1987년 11월 KAL858기 폭파사건의 주범인 김승일과 김현희도 이부서에 소속된 것으로 밝혀졌다.

(4) 인민무력부 경찰국

게릴라전 등 특수전을 주임무로 하는 경보교도지도국(전특수8군단)을 비롯하여 경보병여단 및 해상, 공수특공대를 거느리고 있는 이 경찰국은 대남 게릴라요원을 양성하는 등 남한침투를 위하여 별도로 선발하여 훈련된 10만 여명의 특수부대원들을 관장하며 지휘하고 있다. 이 경보교도지도국 예하에는 경보병여단, 항공침투여단, 해안상륙여단, 경찰여단 등으로 편성된 14개 여단이 있고 별도의 군단에 7개 경보병여단과 4개의 저격여단이 배치되어 있으며 경찰국 직속의 1개 저격여단과 5개 돌격여단 및 전방사단에 20개 경보병대대를 보유하고 있다.

(5) 특수공작기구

북한은 1979년 10월 26일 사태 및 1980년 광주사태를 계기로 당 대남 공작기구 내에 한국내에서의 무장봉기유발을 목적으로 한 별도의 대남특수 공작기구를 만들었다. 1979년 10월 26일 직후인 11월에 무장반란을 유발 할 목적으로 특수공작기구인 「대남지도부」를 설치하였고, 1980년 12월에는 정치범탈취, 교도소 폭파 용공분자 도피 등을 주요 활동으로 하는 「9인의 연락공작부」를 1981년 11월에는 요인암살, 시설폭파 등 대남 교란책동을 전담하는 「특수공작부」를 설치하였다. 한편 1982년 5월에는 재일조총련중앙조직에 「통일사업부」라는 대남 특수사업전문기구를 설치하고 그 산하에 일본내 지하조직으로 5~개의 「대남공작센터」를 은밀히 조직하여 일본 적군파와 남미 및 유럽 등지의 불순 교포조직 및 국제테러 조직들과 연계하면서 제3국을 통한 대남침투 및 테러공작을 위해 그들을

매수, 조직원으로 포섭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6) 특수공작대

1980년 10월에 조직된 것으로 한국의 요인암살, 주요시설폭파, 대남 및 해외 심리전공작을 목적으로 조직된 특수공작대가 구성되었다. 이 조직은 극렬분자들을 중심으로 조총련 및 해외에 있는 친북조직원들로 망라되었고 김정일의 직접지휘하에 부여받은 임무수행을 위해 철저한 육체훈련을 받고 있으며 브라질, 캐나다, 니카라과, 스웨덴, 덴마크, 일본, 앙골라 등에 해외지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 4 장 동북아시아 및 한국의 대테러 정책 발전 방향

제 1 절 강대국의 대테러 정책

1. 미국의 대테러 정책

1)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신설

9.11 테러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원인이 CIA·FBI 등의 정보교환·협조 체계 미흡에 있었다는 지적과 함께 관계기관 간 원활한 업무협조와 테러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통합·조정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반영하여 2003년 1월 24일에 통합 대테러 기구인 ‘국토안보부’가 출범하였다. 국토안보부는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22개 테러관련 기관 및 조직을 통합하여 구성인원이 17만여명에 달한다. 국토안보부의 임무는 대미 테러공격 예방과 대테러활동 취약성 제거, 테러피해 복구 지원 등이며 세부적으로 정보분석과 인프라 보호, 화생방 및 핵 대응조치, 국경 및 수송 부문 보안, 긴급사태시 대처 및 대응조치, 연방·州·지방정부 및 민간부문과의 공조 등 5가지 기능을 수행토록 하였다.⁶⁶⁾

2) 테러위협통합센터(TTIC, Terrorist Threat Integration Center) 신설

2003년 5월 1일에 CIA·FBI·국토안보부 등 유관기관간 테러위협 첩보의 공유와 신속한 대응을 목적으로 대테러 통합 정보기구인 ‘테러위협통합센터’가 출범하였다. TTIC는 국가 최고 테러위협 평가 및 분석기구로서 국가 지도층에 모든 테러위협 첩보 평가를 제공하고 국가 대테러시스템을 연구·개발하며 테러분자·협의자에 대한 Data-Base를 구축·관리하는 한편 행정부 내 대테러 정책입안의 중추기관으로서 정보 통합·분석업무에 중점을 두고 각종 테러관련 보고서를 생산·배포한다. TTIC는 미국 내 대테러 부처간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첩보를 통합·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

66) 국가정보원(2003), 『월간 테러정세』 5월호, 서울 : 국정원, pp.43-47.

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일부에서는 국토안보부, 국무부, 국방부, FBI 등 유관기관 사이의 업무 중복이라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⁶⁷⁾

3) 유학생 및 미국 방문자에 대한 출입국 규제 강화

미국은 2003년 8월 1일에 ‘유학생 신상정보 추적시스템’(SEVIS)을 전면 가동하고 2004년 1월 5일부터는 방문자 관리 시스템인 ‘US VISIT’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이로써 2003년 8월 1일부터 모든 유학생은 컴퓨터 Data-Base 시스템으로 유학생들의 신상정보를 관리하는 ‘SEVIS’(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에 가입하여 학생의 정보를美정부에 공개하는 교육기관에만 재학하도록 하고 해당 교육기관이 SEVIS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학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단순 여행자를 포함한 모든 입국비자 신청자들에게 美대사관에서의 개별 인터뷰를 의무화하였다.

2004년 1월 5일부터 시행된 ‘US VISIT’(United States Visitor and Immigrant Status Indicator Technology) 프로그램은 미국 입국비자 발급시 안면인식·홍채스캔 등에 의해 비자취득자의 신분을 입력하고 입국심사장에서 찍은 사진과 지문을 대조하여 당사자임을 확인하는 제도로써 과거의 비자위반기록, 테러 연관여부, 형법위반 유무까지 확인할 뿐만 아니라 이민, 시민권 유지상태, 국적, 거주 국가, 미국 내 주소에 대한 정보도 기록하며 방문자 출국시에는 국토안보부에 보고하여 입국시 허가된 기간 내에 출국하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1~2일의 체류기간 위반이라도 차후 미국 입국에 영향을 주도록 하고 있다.⁶⁸⁾

4) 테러리스트 감시센터(TSC, Terrorist Screening Center) 신설

법무부는 2003년 12월 1일에 FBI 산하에 대테러 유관기관간 정보공유 부채문제에 대한 개선책으로 테러범 감시리스트를 통합하기 위해 ‘테러리스트 감시센터’를 설립하였다. 동 센터에서는 국무부 및 테러위협통합센터

67) 윤태영(2008), “9·11테러 이후 미국의 대테러리즘”, 『세계지역연구논총』 26집 3호, 한국세계지역학회, pp.444-445.

68) 국가정보원(2003), 전거서, pp.37-60.

(TTIC)의 정보자료, FBI의 국내 테러혐의자 관련 정보, 기타 연방기관들의 테러관련 Data-Base를 제공받아 연방·주·지방 정부 요원들에게 시스템 자료를 제공하는 임무를 담당하며, 순찰 중인 경찰이나 공항 보안요원, 비자를 발급하는 정부 관리들이 10만명 이상이 등록된 단일 감시리스트를 직접 열람 가능하도록 하였다.⁶⁹⁾

5) 대테러 합동정보조정위원회 설치

美법무부는 2004년 2월 25일 FBI 등 법무부 유관기관 간 정보 수집을 감독하고 조정할 ‘대테러 합동정보조정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동 조정위는 FBI·마약단속국 등 정보기관 및 법집행기관 대표들로 구성되며 관련기관들이 독자적·산발적으로 수행해 온 테러정보 수집활동에 따른 문제점 해결과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해 역할을 조정하고 테러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미국 및 외국 대테러기관에 제공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9.11 테러 예방의 실패가 대테러 정보공유 시스템의 미비가 주 요인이었다는 판단에 따라 정보공유 시스템의 보완책으로 이미 국가 최고 테러 위협 평가·분석기구인 ‘테러위협통합센터’(TTIC)와 FBI 산하의 ‘테러리스트 감시센터’(TSC)를 신설한 바 있는데 ‘대테러 합동정보조정위원회’는 앞의 2개의 조직과 유기적인 협조 하에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⁷⁰⁾

6) 관련법 제정

9.11 테러 이후 미국은 테러에 대한 수사권한과 처벌규정, 테러자금에 대한 감시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애국법을 제정하였다. 외국인 테러혐의자를 법무부장관의 결정만으로 구금할 수 있게 하고 재판 없이 곧바로 추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만 7일 이내에 추방 또는 형사소추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석방하도록 하고 있다. 테러사건 수사와 관련한 수색영장 발부 시에는 미국 전역에 걸쳐서 수색이 가능토록 발급요건을 완화하였다. 통신감청에 있어서는 그 대상을 특정 전화가 아닌 특정 인물로 확대하여 테러혐의자가 사용하는 모든 통신수단에 대한 감청이 가능하도록 하

69) 윤태영(2008), 전계논문, p.447.

70) 국가정보원(2003), 전계서, pp.59-65.

면서 e-mail의 경우는 사법부 허가 없이 수사당국의 결정만으로 1년간 감청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추적 장치의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최초 90일 연장시 90일까지 사용하도록 하고 긴급 시에는 48시간 동안 사용이 허용되는데 이 경우 법원의 사후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입수한 테러관련 정보를 정보기관과 수사기관 간에 공유하도록 하였다.

테러자금 세탁 방지와 자금 유입 차단을 위해 테러를 준비하거나 계획하는 데 사용된 자산이나 그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은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 재무부가 자금출처 공개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보고의무를 강화하는 등 금융기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였다. 또한 테러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크게 강화했다⁷¹⁾

2. 중국의 대테러 정책

미국 9·11테러 이전에는 대테러 전담기구 없이 국가안보 및 사회 안전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결정 및 지휘권을 행사하는 당중 「국가안보영도소조」를 설치(2000.11), 운영해온 가운데 「국가안보영도소조」는 조장 강택민 주석, 부조장 호금도 국가부주석 전기침, 부총리 장만년 군사위부주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무대책기구로 공안 무장경찰은 테러진압을, 안전부는 테러관련 정보 수집·지원 활동은, 인민검찰원은 테러사건 조사를 담당토록 하고 있다.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는 행동조직으로 무장경찰 산하에 내위 부대를 설치하고 평시 치안유지를 담당하다 테러 발생시 당중앙 지휘를 받아 해당지역에 투입되어 공권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미국사건 이후 중국민항총국이 항공기 보안 강화의 일환으로 항공기내 보안 업무를 맡아오던 민간 경비원 대신 2,000명 규모의 항공정찰대 창설을 추진하는 한편 미국의 「델타포스」와 같은 「대테러 특수부대」를 창설, 헬기 조종·낙하 등 전술훈련은 물론 소수민족 언어 및 영어 숙련 등을 통해 최우수 전문요원을 양성할 계획이다.⁷²⁾

71) 신의기(2002), 『테러리즘 관련법제 정비방안』, 서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88-92.

3. 일본의 대테러 정책

일본은 1977년 9월 28일 일본 적군과 소속 테러리스트들은 156명이 탑승한 일본 항공사 소속 여객기를 봄베이에서 공중 납치하여 방글라데시 다카에 강제로 착륙시키는 사건이 있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일본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6명의 일본 적군과 테러리스트의 석방을 요구하였고, 히로히토 일본왕은 전범으로 비난하고, 록히드 뇌물사건을 일본 정부가 은폐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일본 정부는 이에 인질 석방금 600만 달러를 지불하였고, 일본 내에 수감 중이던 일본 적군과 소속 테러리스트 9명까지 석방하였다. 인질은 구출하였으나 테러리스트들의 요구를 들어 줄 수밖에 없었던 이 치욕적인 사건이 있는 후 이를 계기로 일본은 테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⁷³⁾

일본도 9·11테러사건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국제 테러 대책 본부를 설치하였고, 방위청은 기존의 방위력 증강 계획 중 ‘게릴라 공격 테러 대응을 위한 특수부대 창설 계획’을 앞당겨 3개 중대, 500명 규모의 테러 전담 특수부대를 조기 창설한다는 방침을 결정하였다.

2001년 11월 2일 미군 주도의 테러 보복공격을 자위대가 후방지원 하기 위한 ‘테러대책 특별조치법’을 개정하고, 일본 내 미군 시설 등을 자위대가 경비할 수 있도록 한 ‘자위대법 개정안’과 의심 선박에 대한 선제 사격을 허용하는 ‘해상 보안청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 법의 제정과 관련하여 해외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행위가 전쟁 선포를 선언하고 있는 헌법에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 대하여 많은 논쟁이 있었다. 테러특별조치법은 2년간 이 한시법으로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타국 영토까지 확대하고, 자위대의 전투시 해외파견을 처음으로 허용한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이법은 무기, 탄약, 수송 및 의료장비의 보급, 전투행위 도중에 조난당한 실종자 수색활동, 유엔 등이 요청에 따른 생활물자 수송,

72) 광병현(2006), “테러활동 및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동국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55.

73) 최춘송(2003), “한국의 초국가적 테러리즘 대응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교 정치학석사 논문, p.65.

의료 등의 난민 지원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⁷⁴⁾.

또 항공기 납치와 폭탄 테러 등의 범죄행위에 사용되는 자금을 제공하거나 수집하는 행위를 새로운 범죄로 규정하여 최장 10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테러자금 공여 처벌법’을 개정하였다. 일본 정부는 2001년 10월 ‘테러자금 공여 방지조약’에 서명했으며, 관련 조약의 국회비준 절차에 맞춰 일본 국내법을 이같이 정비하도록 했다. 일본의 현행법에서 범죄의 실행과 관계없이 자금제공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매춘방지법과 ‘사린(가스)방지법’등이 있었으나 테러행위 전반에 대한 자금제공을 처벌대상으로 확대하고 있다.⁷⁵⁾

4. 러시아의 대테러 정책

2000년 10월 러시아와 CIS 5개국 간 체결된 ‘집단안보조약’에 의거 지난 8월 「합동군」(신속배치군)을 창설하여 평상시는 자국에 주둔하다 유사시 공동 출동태세를 유지한다. 모스크바에 러시아와 CIS 5개국 간 합동 상설 정보교류협의체인 「대테러 센터」(일명 국제테러 대책본부)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의 비슈케크에도 러시아, 중앙아시아 3개국 및 중국이 참여하는 제2의 「대테러 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는 98년 7월 제정된 ‘테러와의 전쟁에 관한 관련법’에서 테러진압 작전본부에 테러 지역내 교통통신의 임의사용, 개인 기본권이 일시 제한, 군 병력 및 연방기관이 보유한 각종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미국 사건 이후에는 11월 1일 기존의 ‘돈세탁 방지법안’에 근거하여 자금세탁 방지 및 불법 은행거래 단속을 위한 특별기구인 「재정감독 위원회」를 신설하였으며, 법무부는 푸틴 대통령 지시에 의거 대테러 강화방안을 마련하였다.⁷⁶⁾

74) 특별조치법 제3조, 이법의 정식 명칭은 ‘평화 13년 9월 11일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리스트에 의한 공격 등에 대응하여 행하는 국제연합 헌장의 목적달성을 위한 여러 외국의 활동에 대하여 실시하는 조치 및 관련 국제연합결의 등에 기초한 인도적 조치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다.

75) 김성일(2009), “효율적 테러대응을 위한 대테러정책 발전방안연구”, 국제문화대학원대 정치학 석사학위 논문, pp.26-28.

제 2 절 한국의 대테러 발전 방향

1. 한국의 대테러리즘 환경 분석

1) 9·11 이후 국제 환경의 변화

국제사회는 9·11 테러 사태를 계기로 과거보다 테러리즘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으나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데는 한계를 보이는 실정이다.

21세기의 테러리즘은 과거 테러리즘의 행태와는 달리 개인 또는 소규모 집단화, 테러 준비 및 실행의 용이성, 다문화 사회 내 종교적 반감적극 활용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현대 테러 조직은 먼저 정형화된 조직의 위로부터 연계나 간접적으로 지시를 받는 세포 조직화보다 큰 이념의 틀에서 국지적 혹은 개인적 조직이 자생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예컨대, 2011년 7월 노르웨이의 브레이비크는 자신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대중을 77명이나 무참히 살해했다. 이 사건으로 세계는 충격과 공포에 휩싸인 것은 물론이고, 이를 계기로 특정 이념에 영향을 받는 개인이 불특정 목표에 대한 테러를 자행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테러리즘의 개인화 배경에는 테러를 준비하고 실행할 때 집단적 활동보다 상대적으로 용이성이 보장된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테러 조직이 대원을 모집하고 각종 무기 조작법과 사제폭탄 제조법 등을 교육 훈련하고 작전 지침까지도 인터넷을 통해 제시하는 이른바 ‘디지털 테러리즘 시대’의 도래도 그 배경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테러리즘 주체와 대상목표물이 다양화되고 있다. 과거 이슬람 과격세력에 의한 테러리즘으로부터 다문화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테러 주체가 다양해지고, 목표도 민간인 다중시설·문화시설 등 ‘연성목표물’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도 다문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 외국인 혐오증 그리고 이슬람 공포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북한과 이슬람권으로부터 잠입한 테러세력에 의한 위협이 점차 고조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사회 불만자의 개인적 테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76) 박병현, 전계논문, pp.54-55.

2010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적으로 80여 개국에서 테러상황이 발생했다. 그리고 2001년부터 2009년까지 한국인이 피해를 입은 테러사건은 86건에 달한다. 하지만 기존의 국내 테러리즘 연구는 주로 심리적·범죄적 차원에서 성격을 규명하고 치안대책을 강구하는 관점에서의 대테러 정책연구에 머무르는 수준이었다. 따라서 오늘날 초국가적 테러리즘의 근본적 원인규명과 전쟁위협 차원의 본질적 연구와는 거리감이 있다.

한국은 남북이 군사적으로 침예하게 대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치안이 안정되어 다행스럽게도 테러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이러한 안정은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북한의 테러 등 도발에 항상 노출돼 있는 현실이다. 또한 단일 민족국가로서 다문화 사회에 대한 반감이나 국제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일부 현지국가의 적대세력까지 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한국 교회의 과도한 선교활동도 이슬람 원리주의자와 조직에 의한 테러사건의 동기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⁷⁷⁾

2) 경제·사회적 환경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신흥 독립국가 중 민주화와 산업화를 달성한 국가로서 한국은 1996년 29번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했다. 한국 상품이 세계시장에서 호평을 받는 등 놀라운 경제발전의 성과를 달성했다. 한국은 세계화 과정에서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위상이 바뀌었다.

한국에서의 자생적 테러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현재 한국은 한 해 출국자 1,300만 명, 입국자 720만 명 시대를 맞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오늘날 초국경적 산업화와 교류, 국제화 그리고 해외 자원 확보를 위해 특히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테러위험국가로 진출하고 있어 한국 국민들이 해외에서 테러위협에 노출되는 지역과 기회가 확대되고 있고 해외 한국인 피해사례도 속출하는 실정이다. 최근 한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인이 자행한 테러사건은 모두 해외에서 발생했다.

2007년 국가정보원과 외교통상부·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 등 4개 부처 공동으로 ‘해외진출기업안전지원단’을 설립해 해외 진출기업의 안전대책을

77) 최재훈(2006), 전개논문, p.160.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위험지역 진출기업에 대한 안전 활동 실태 점검 및 위험도를 평가하고 안전정보 제공과 교육을 지원하다. 여기에 추가로 현지기업에 맞는 테러정보를 정밀 분석해 유사시 안전 조치사항과 대응요령 등 맞춤형 대테러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심리적 박탈감’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는 사회병리학적 요소로서 경계 대상이지만 테러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⁷⁸⁾

2011년 현재 재외국민 수는 278만 명이고,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수는 2010년 말 현재 126만 명(불법체류자 17만 명 포함)을 넘어서 이른바 본격적인 ‘다인종·다문화 시대’가 도래했다. 제조업체의 인력수급 부족으로 외국인 노동인력에 의존하면서 외국인 체류자가 증가했다. 특히 불법 체류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의 약점을 악용하는 업체들로 인해 반한감정을 야기하고 있고 ‘외국인 범죄’도 날로 급증하고 있다. 정부 당국에 의하면 불법 체류자들의 반한활동은 반정부적 시위 및 집회가 주종을 이루는 가운데 일부 단체는 테러협박도 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최근 들어 탈북자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 국내에 거주하는 인원은 이미 2만 명이 넘어섰다. 더 나은 생활을 기대하고 탈북한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서도 고된 삶이 계속된다면 증오심으로 발전되고 이는 테러사건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고 본다.⁷⁹⁾

특별한 임무를 띠고 입국한 외국인이 테러를 자행할 수도 있다. 즉, 해외 테러조직이 국내로 은밀히 입국해 테러단체를 조직할 수도 있다. 2010년 2월 파키스탄인이 한국에 탈레반 조직을 결성하려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이 파키스탄인은 이슬람 사원에서 성직자로 일하면서 신자들을 포섭해 탈레반 조직을 결성하고 주한미군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78) 대표적인 사건으로 2003년 2월 18일 인격 장애자 김대한(당시 56세)이 사회에 대한 증오와 복수로 대구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에서 열차 차량에 방화해 192명이 사망하고 148명이 부상당했으며, 열차 12량이 전소된 사건과 2008년 2월 10일 토지보상에 불탄을 품은 채종기(당시 69세)가 국보 1호 송례문에 방화해 방화 5시간 만에 석축을 제외한 건물이 모두 붕괴된 사건이 있다.

79) 진봉근(2011), “2011년 북한정세 전망과 새로운 대북전략 모색”, 『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원, pp. 1-2.

3) 정치·군사적 환경

다양한 테러리즘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한국의 특수한 환경은 매우 중요하다. 탈냉전의 국제 화해무드와는 별개로 한반도에서 북한의 도발은 끊임없이 자행되어왔다. 물론 일부에는 북한의 도발이 테러리즘의 범주에 속하는가에 대한 이견도 있다.

분단 이후 북한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의 급상승하거나 북한 내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국가기관이 주도해 한국을 대상으로 테러행위를 자행해왔다. 북한은 암살·납치·폭파·습격·침투 등 여러 형태의 도발을 560회 이상 자행했으며, 2010년 3월의 천안함 사건과 같은 해 11월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볼 때 북한이 새로운 세습체제 안정을 위한 과도기에도 대남 테러리즘을 계속 감행할 개연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본다.⁸⁰⁾

북한이 이와 같이 테러리즘 형태의 도발을 계속하는 것은 군사분계선을 통한 게릴라식 침투공격이나 반공의식이 투철한 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무장공비를 침투시켜 사회혼란 조성이 거의 불가능함을 인식했기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테러리즘 방법을 택하는 것이다. 북한이 추구해온 테러리즘의 특징을 요약하면, 첫째, 국가가 지원하는 직접적인 테러리즘을 주로 한국을 대상으로 한정해 실행한다. 한국 내의 정치·경제·사회적 혼란을 조성해 여론을 악화시킴으로써 미국의 지원을 저지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획책하고 있다. 그리고 2012년은 한국에서 서울 핵 안보정상회의와 여수 엑스포가 개최되고 대선이 예정되어 있다. 북한은 노동당 산화에 대남 당당비서의 지휘 아래 통일전선부·연락부·조사부·대외정보조사부를 두고 해외테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둘째, 북한내부의 불만을 해소하고 대내결속을 위한 수단으로 외부에 대한 적대감이나 긴장을 조장한다. 경제적 어려움과 3대 세습체제 안정과 관련해 대내결속을 필요로 하고 있고 2012년까지 강성대국-김정일 사망 후 강성국가로 수정-달성 목표를 놓고 실적에 대한 강박감이 많은 실정에서 대남 테러의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셋째, 국제혁명역량 강화를 위해 폭력을 수출한다. 북한은 1966년부터

80) 차두현(2008), 전계논문, p.183.

중남미와 아프리카 35개국을 대상으로 테러 훈련단 및 고문단을 파견해 1994년까지 5,000~8,000명을 교육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국은 1988년 김현희 대한항공기 폭파사건으로 빌 클린턴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명했고,⁸¹⁾ 2002년 부시 대통령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했다. 그리고 2002년 1월 연례 일반교시에서 부시 대통령은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규정했다.

주변국 상황으로 2012년은 미국과 러시아의 대선과 중국 지도부 교체가 예정되어 있는 해이고, 더욱이 북한의 3대 세습으로 인한 권력구조 재편과정에서 어느 때보다도 테러행위를 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대남 테러를 시도한다면 다음과 같이 상정할 수 있다.

첫째, 특수부대를 직접 한국에 투입할 수 있을 것이다. 20만 명 규모의 북한 특수부대는 목표물 습격·파괴, 후방교란, 통신소·비행장 등 한국의 주요 전술거점 무력화와 요인암살 등 테러행위를 목적으로 운용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2010년 12월 현재 북한은 130여척의 공기부양정과 70여척의 잠수함(정), 330여 대의 AN-2기를 이용해 특수부대를 한국으로 수송할 수 있다. 2010년 천안함 사건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둘째, 위장 탈북자를 국내에 침투시켜 테러조직을 결성해 테러행위를 자행할 수 있다. 최근에 위장 탈북자가 조직한 테러단체가 2개나 적발되었다.

셋째, 북한 당국이 한국의 일부세력을 포섭해 사회혼란을 조성할 목적으로 테러행위를 직접 자행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할 가능성도 있다.

넷째, 북한이 한국의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사회 증오 또는 사회 불만 세력에 접근해 테러를 통한 사회 혼란을 조장할 수 있다.

북한은 그동안 이른바 남조선 혁명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테러수단을 사용해 대남도발을 지속해왔고, 현재도 여러 국내·외적 상황적 요인으로 볼 때

81) 보수 강령론자들은 ‘미국이 추구했던 모든 것이 북한의 핵 검증 패키지에 포함됐기 때문’이고, ‘대결보다는 대화를 추구한다’는 취지 아래 해제를 적극 찬성했지만 반대 측은 ‘김정일의 20년 벼랑 끝 전술에 미국이 굴복했다’는 주장했다. 이와 연계해 대북적성국 교역금지법과 테러지원국에 대한 경제제재조치가 해제됨으로써 북한은 꼭 막혔던 대외 경제 루트가 풀리는 효과도 누렸다. 2010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을 저지르고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암살을 시도하는 등 북한의 만행을 계기로 미국 하원에서는 테러행위에 관련돼 있음을 근거로 들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제기하기도 했다.

도발이 지속적으로 예상되므로 국가 차원의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추가해 한국에서도 노르웨이의 경우처럼 극우주의자들에 의한 테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11년 6월 현재 다문화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 단체가 10개 활동하고 있고, 다문화 정책에 반대하는 인터넷 카페회원도 6,000명이 넘는 것을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반감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고 정부 정책을 바꿔보려는 극단적인 테러행위를 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⁸²⁾

2. 한국의 대테러 정책현황과 문제점

1) 미 9·11테러 이전

(1) 테러대책기구의 조직 및 임무

한국의 대테러 정책은 최근까지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중점을 주고 대처해 오다가 1981년 올림픽 개최가 서울로 확정되면서 테러 대비태세의 중요성이 증대되었다. 이러한 원인은 1972년 9월 뮌헨 올림픽에서 ‘검은 9월단’의 테러조직에 의한 테러발생사건과 북한이 올림픽 유치를 방해하기 위한 공작이 진행되고 있다는 징후가 포착되면서였다. 정부는 1982년 대통령 훈령 제47호를 통해 대테러리즘 활동 지침을 마련하였다. 이 훈령에 따라 대테러리즘 정책의 심의·결정 및 정책시행의 지휘감독을 위하여 대통령 직속에 대테러리즘 대책위원회가 설치되고 대책위원회가 심의·결정한 정책의 시행과 관계부처 간 대테러리즘 기능의 유기적인 협조를 위하여 대테러리즘 실무위원회를 두었다.

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며 외무, 행자, 법무, 국방 및 교통부장관, 국가안전기획부장, 관세청장 그리고 기타위원장이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구성되었다. 그 임무는 국제 테러리즘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외교·군사적 정책결정 보좌, 대테러리즘 정책을 심의·결정하며 정부 각 부처 간 및 관계기관의 대테러리즘 업무를 조정, 심의 결정된 테러리즘

82) 김응수(2012), 전계서, pp.283-290

정책의 시행을 감독, 사건발생시 대응조치를 지휘통제하는 것이다.⁸³⁾

대테러 실무위원회는 대책위원회의 하부조직으로 위원장은 행자부 장관이 되며 관계부처의 국장급 실무자가 위원이 된다. 임무는 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정책의 시행, 정보의 교류 및 관할 문제의 해결 등에 관한 관계부처 간 대테러리즘 업무수행 기능을 조정·협조, 대테러리즘 정책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책위원회에 건의하는 것 등이다.

대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의해 주도되는 대테러리즘 정책의 실질적 수행을 위해서 각 부처 내에 대테러리즘 전담기구를 운영하였다. 외무부에는 외무부 훈련 142호에 따라 국외에서 발생하는 테러리즘 처리를 위하여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대책 본부와 제2차관보를 위원으로 하는 대테러 대책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내무부는 내무부 훈련 제710호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이다.

(2) 한국 대테러기구 및 조직운영상의 문제점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최상의 기구인 대테러 대책위원회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으나, 9·11테러 사건 이전 몇 년 동안 대책회의의 역할은 아주 미미한 정도였으며 관련 부처의 테러대비 활동은 거의 전무하여 관련 회의나 위원회는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또한 대테러 업무의 운영 측면을 보면 각 부처마다 대테러 관련 업무가 분산되어 있다. 국외 사건의 경우 외교통상부가, 국내 사건의 경우 행정자치부가 계획과 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테러사건의 발생이 지리적으로 명확하게 국내, 국외로 구분되는 경우도 있지만 항공기 납치와 같은 경우는 예외이다. 이러한 경우 어디까지가 외교통상부의 책임이고 어디까지가 행정자치부의 책임인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다. 아울러 축각을 다투는 업무의 경우 업무 이관상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테러가 발생하면 일사분란한 신속대응이 필요하겠지만 통일된 종합 대

83) 윤태영(2008), 전개논문, p.456.

웅기구가 마련되지 않아 실 상황 발생 시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우리는 북한의 테러리즘에 중점을 주고 대비하여 왔으나, 9·11테러와 같은 대형화, 다양화, 동시다발적인 대량살상 테러 등의 뉴테러리즘에 대한 대처는 대단히 미흡하다. 보다 효과적인 대테러 정책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테러대응 조직체계의 정립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테러와 관련하여 위기관리 시스템과 테러 후 발생하는 위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의 부재이다. 각 부처별로 부여된 임무마저도 평시관리 부처가 불분명하였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조직 편성이 ‘위원회’ 형식으로 조직되었기 때문에 사태발생 시에만 편성,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테러대응관련 법적·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지 못하였다. 현재 대테러 관련 법령은 대통령 훈령인 ‘국가대테러 활동지침’이 있으나, 동 훈령으로는 행정기관 외부에 대한 구속력을 발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테러행위의 예방 및 저지 등의 임무수행이 곤란하다.

셋째, 뉴테러리즘에 대한 대비태세의 부족이다. 생물·사이버·방사능·대규모 동시다발 테러 등 테러대상이 광범위해지고 수단도 다양해지는 지금의 상황에서 적절한 대비태세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각종 다양한 테러발생 유형을 분석하고 유형별 대응전략과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⁸⁴⁾

2) 미 9·11테러 이후

미국의 9·11테러 사건은 전 세계를 변하게 하였다. 새로운 테러리즘 양상에 세계 각국들은 서둘러 자국의 안보를 위해 법과 제도를 고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기존의 테러대응 조직으로 새로운 테러리즘에 대응하기는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테러활동지침의 개정과 테러방지법의 입법화를 시도하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1982년의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을 2회의 일부 개정을 거쳐

84) 차두현(2008), 전계논문, pp.179-180.

2010년 3월 15일부로 대통령훈령을 전면 개정하였다. 테러리즘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하에 테러대책회의를 두고 국무총리는 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이 되어 국가 대테러 정책 임무를 맡도록 하였다. 테러대책회의는 관계기관과 대테러 업무의 유기적 협조 및 테러사건에 대한 대응책의 결정 등을 위하여 테러대책회의 밑에 테러대책상임위원회를 설치하고 상임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하였다. 여기 상임위원회에서는 테러사건의 사전 예방, 대응대책 및 사후처리 방안의 결정, 국가 대테러업무의 수행실태 평가 및 관계기관의 협의 조정, 대테러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정 및 개정 관련 협의 임무를 부여하였다.

전면 개정된 훈령에 의하면 국가정보원에 테러정보통합센터를 두고 있으며 국가정보원장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관계기관 간 테러예방활동의 유기적 협조를 위해 지역 테러대책협의회를 두었다. 이 외에도 공항 또는 항만 내에서의 테러예방 및 저지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공항, 항만별로 테러 및 보안대책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필요한 사항은 논의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다. 대책회의 예하의 대테러 센터는 탐지, 조기경보, 정보수집, 사건수사 등 대테러 활동에 관한 기획 조정업무를 총괄하게 하였다. 그리고 지역 및 공항·항만에 대한 효과적인 활동을 위해 지역 대테러 대책협의회를 두고 있다.⁸⁵⁾

대응조직으로는 분야별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 및 구성하여 테러발생시 현장지휘본부 설치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3. 한국의 대테러 발전 방향

1) 대응조직 법적 측면

(1) 대테러 통합조정기구의 신설

미국은 테러방지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9.11테러사건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고 사건 처리과정에서도 각 부처 간의 긴밀한 협조

85) 이태운(2010), 전계서, pp.404-409.

가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안보회의 수준의 국토안보회의를 신설하였다.

이 기구는 대테러 전반에 걸쳐 대통령에게 조언과 보좌를 하고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의 업무조정 및 정책개발을 시행한다. 또한 국토안보회의의 결정사항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미국 내 테러방지, 예방 및 복구활동 등을 총괄 조정하는 ‘국토 안보국’을 새로이 창설하였다. 미국은 9.11테러를 계기로 테러발생시 이를 종합하여 판단, 부처별로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테러 통합조정체계를 갖추게 되었다.⁸⁶⁾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82년의 국가 대테러 활동지침은 느슨한 형태의 협의체기구로 적극적 테러예방을 위해선 문제가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책회의 중심의 회의체를 국무총리 산하에 두고, 실질적 업무는 국정원에서 관장하고 있다. 또한 현재 비상설 협의기구로 되어 있어 테러대책회의 기구가 강력한 리더십과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국가 안보차원의 테러 방지를 위해서는 충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개발이 필요하고 대테러 업무를 총괄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전담기구의 신설이 요구된다.

따라서 국가 안보차원의 테러 방지를 위해서는 충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개발이 필요하고 대테러 업무를 총괄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전담기구의 신설이 요구된다.

9.11테러 후 정부는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테러대책회의를 두고 5개 분야별 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해 오다가 금년 들어 대통령훈령을 전면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구 역시 테러방지가 전쟁차원의 지구촌 이슈로 부각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법적 제도적 근거가 취약하며 또한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대테러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종합,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아울러 각 부처별로 대테러 업무가 분산되어 있는 상황에서 실제 테러 발생시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대테러 전담기구를 설치함으로써 테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가능케 하

86) 윤태영(2008), 전계논문, pp.456-459.

여 국민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다른 재난에도 대비할 수 있고 신속한 구호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물론 테러발생을 100% 저지할 수 없다고 해도 대테러 전담기구의 존재 자체가 테러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철저한 보안은 테러공격을 어렵게 만들고 테러정후의 포착 확률을 높이고, 피해와 혼란을 최소화시키며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테러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종합대응기구의 창설이 요구된다. 이 기구는 어떤 특정 부처에 두는 것보다는 미국처럼 대통령 직속으로 두거나 국무총리 직속의 독립된 형태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범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테러대비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의 구축을 시도하기도 하였으나 지금의 상황은 낙관적이지 못하다. 향후의 보다 효율적인 대테러 대배태세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테러리즘 예방 및 대응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계·협조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미국이 9.11 사건 후 대테러 업무의 기능이 분산되어 있음을 직시하고 대통령 직속기구로 ‘국토 안보국’을 신설하고 테러방지에 즉각 대응한 정책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둘째, 테러대응 정책의 지속적인 정책개발과 전문가의 육성이 필요하다. 우선 국내에서 발생 가능한 테러유형을 분석하고 유형별 특성에 따라 대응체계와 전략을 개발하고 피해평가와 대응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

셋째, 테러발생 후 효율적 대응체계와 능력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이 보완되어야 한다. 1) 주기적인 예방활동과 훈련 실시, 2) 전문가 및 전문 대응 요원양성, 3) 전·평시 테러 신고체계의 일원화, 4) 지방의 비상관리센터의 정비 및 강화 등이다.

(2)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제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테러사건과 관련하여 포괄적 규제를 위한 단행 법안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대테러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는 미국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인권침해에 대한 논란을 빼놓을 수 없다. 즉 국가안보가 개인의 자유를 우선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지속적인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비록 인권단체에서 주장하는 개인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국가가 다수의 국민안전을 위해 공권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논란과 관련하여 인권침해의 논란은 접어두고 오직 테러예방활동에 필요한 국가 차원의 대테러 대응체계의 구축과 국제 테러리스트에 대한 규제 등 국가 대테러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과 현재 국내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테러방지법안을 둘러싼 시민단체와 정보기관의 대립구조는 상호 불신이 아닌 상호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은 ‘한 마리의 빈대를 잡기 위해서 초가산감을 태울 수 없다’는 평범한 사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04년 4월 1일 국정원에 테러정보종합센터를 발족시켜 1) 국내 외 테러 관련 정보수집, 분석, 작성, 배포 등 통합관리, 2) 24시간 상황실 운영, 3) 테러 관련 위기 평가 및 경보발령, 4) 테러대책 상임위원회 대책 기구 결정사항 이행 점검, 5) 테러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를 하고 있다.⁸⁷⁾

기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의 대테러리즘 활동의 법적 근거는 대통령훈령 47호가 유일하다. 그러나 이 훈령은 국가 대테러 활동의 집행을 위한 행정조치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이는 국제테러가 21세기의 새로운 전쟁 차원의 문제점으로 부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위기관리 차원에서 대응함에는 한계가 있다.

대테러 업무는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에 걸친 업무 영역이며 테러대응 조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테러리스트에 대한 수사 및 재판에 대한 구체적 제반 절차나 법적 근거가 없다.

최근의 테러양상이 전쟁수준의 가공할 파괴력을 가지고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차원에서 총력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 각국은 대테러 관련 법적, 제도적 보완과 전담기구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영국은 1974년 11월 21일 184명의 희생자를 낸 버밍햄 선술집 폭파사건 후 ‘테러방지법’을 제

87) 이상필(2002), “대테러 위기관리체계의 보완점 모색”, 『입법정보』 제73호, 국회, p.9-16

정하였다.

미국은 9.11테러 이후 1984년에 제정된 ‘국제테러규제법안’을 강화한 ‘USA Patriot Act 2001’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테러협회가 있는 외국인은 기소 또는 추방절차 개시에 앞서 7일 동안 구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테러용의자들의 추적을 피하려고 전화를 바꾸는 경우에 대처할 수 있도록 법원의 영장을 얻어 일괄적인 도청과 인터넷 추적을 허용토록 하였으며 정보기관들이 첩보를 공유하는 체제를 갖추며 돈세탁 혐의가 있는 외국은행들에 대해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테러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국가적차원의 대응체제 구축 토대를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⁸⁸⁾

2) 환경 및 기술적 측면

(1) 테러정보체제 도입 및 시행

테러정보는 테러발생 확률과 테러의 강도를 국민에게 알리는 것으로 테러위협의 정도를 알림으로써 상황에 미리 방어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다음 단계의 경보에 대비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테러정보는 모든 재난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테러뿐 아니라 재난이 예상될 때도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에 국가차원의 테러정보체제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미국은 전 세계 국가 중에서 가장 발달된 정보수집체제와 정보분석 체제 그리고 이에 따른 일원적이고 효과적인 경보발령체제를 가지고 있다. 미국은 테러위험도에 따른 경보를 Green(저위험단계), Blue(주의단계), Yellow(상승단계), Orange(고위험단계), Red(급박단계) 5단계로 분류하여 행정부 산하 기관의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호주는 4단계, 영국은 6단계, 독일은 5단계의 테러정보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새로이 개정된 국가 대테러 활동지침에 의하면 국정원의 대테러 정보통합센터장은 테러위기의 징후를 포착한 경우에는 이를 평가하여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테러경보를 발령하도록 되어 있다. 테러경보의 종류와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88) 이태윤(2010), 전계서, pp.418-423.

- 관심단계(Blue) : 테러 관련 상황의 전파, 관계기관 상호 간 연락체계의 확인, 비상연락망 점검
- 주의단계(Yellow) : 테러대상 시설 및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국가정보시설에 대한 경비 강화, 관계 기관별 자체대비태세 점검
- 경계단계(Orange) : 테러취약요소에 대한 경비 예방활동 강화, 테러취약 시설에 대한 출입 통제의 강화, 대테러 담당공무원의 비상근무
- 심각단계(Red) : 대테러 관계기관 공무원의 비상근무, 테러유형별 테러사건 대책본부 등 사건 대응조직의 운영준비, 필요장비 및 인원의 동원태세 유지

정부는 이러한 제도를 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적용시켜 실질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문으로 묶여 캐비닛 속에 잠자는 규정이 아니라 민방위훈련 등과 같이 통합하여 유사시 항시 활용될 수 있는 제도로 정착해 나가야 할 것이다.⁸⁹⁾

(2) 첨단장비 확보

테러리스트들에 의한 대량살상무기의 사용 가능성과 저렴한 제조비용으로 막대한 파괴력을 발휘하는 생화학 무기의 출현이 가시화되어 가는 현실이다. 과거 생화학 무기는 걸프전 등과 같이 전면적 양상을 띠는 전쟁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었으나 1955년의 일본 옴진리교의 동경 지하철 독가스 살포사건과 9.11테러 이후 미국의 탄저균 사례에서 보듯이 국제테러는 전통적 테러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의 대처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국내에서의 생물무기에 의한 테러빈도 증가로 1997년부터 생물무기의 탐지능력을 향상시켜 테러리스트 등에 의하여 사용되는 생물무기를 실시간에 탐지하고 확인하는 탐지장비를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1998년에 클린턴 대통령은 생물학무기 위협에 대비할 것을 선언했다.⁹⁰⁾

차세대 생물 독소 탐지식별기인 등을 생물학 작용탐지, 경보장비로 개발함으로써 보다 발전된 생물무기 탐지기를 국회의사당, 백악관, 중요 공장

89) 차두현(2008), 전개논문, pp.189-191.

90) 이대성(2007), “한국의 테러가능성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독사회과학논총』 제 17권 제1호, 한독사회과학회, p.403.

시설, 지하철역 등 주요 시설에 설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생물무기 탐지기를 설치하더라도 실제로 생물무기에 의한 테러리즘을 막을 수는 없으나 국민들에게 경보함으로써 테러리즘 공격효과를 누그러뜨릴 수 있으며, 생물학 작용제에 대한 백신이 제한된 상황에서 실시간 탐지, 경보함으로써 사람들이 위중하게 되기 전에 치료할 수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된다. 고위 인사나 VIP들을 생물무기에 의한 테러리스트로부터 안전하게 이동하기 위하여 생물무기 탐지기가 장착된 Sport Utility Vehicle과 같은 트럭에 억압체계를 장치하여 공기 중의 생물무기에 노출을 방지함으로써 탄저균에 의한 테러리즘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은 생물학 테러리즘에 조기 대응할 수 있고 평시에 각종 전염병의 확산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생물테러리즘 추적 프로그램을 하버드대의학정보연구원에서 개발하였다. 그 밖에도 화생방 공격에 대비한 대응팀은 NBC Team Cruiser 차량을 가지고 미국 전 지역을 순회하고 있다.

영국은 특정 생물무기로부터 필요한 의학적 대처를 위하여 생물무기에 대한 테러시 적기에 탐지하기 위하여 화학생물방어연구소에서 개발된 Prototype Biological Detection System을 걸프 지역에 시험 배치한 결과 이 시스템은 항원, 항체반응에 의거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 2003년부터는 화생방 탐지체계를 앞당기는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국가안보 차원에서 운용될 장비로는 MCSAD(Man Portable Chemical Agent Detector), 경화학작용제탐지기(Light chemical Agent Detector), 통합생물학보호체계(Integrated Biological Protection System)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신형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서 각종 첨단장비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9.11테러 후 미국을 공포로 몰아넣은 탄저균과 같은 생물을 이용한 테러를 식별하기 위한 생물무기탐지장치(BIDS)가 국내에는 한 대도 없는 실정이다. 방독면 보급률도 아주 저조하며 최근의 방송 보도처럼 이미 지급된 방독면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생물학적 대비 장비는 아주 미흡한 상태이며 특히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각종 세균검사, 채취장비의 부족은 심각한 상태이다.

(3) 국제협력의 증진을 통한 정보의 공유

테러가 국제화되어 가는 추세에서 테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제적인 정보의 공유가 중요하다. 현실적으로 한국이 미국과 같은 정보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다수의 요원을 해외에 파견하여 테러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용이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적인 테러정보 공유가 절실하다.

따라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과 아랍국들에 주재하는 공관에서 테러정보 수집을 위해 더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자해야 함은 물론 테러정보 공유를 위해 양자협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테러의 유형이 대규모 형태로 전환되고 있는 현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확대되어 가고 있는 국제협력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 유럽의 대테러 공조는 말할 것도 없고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테러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국가의 협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빈번한 테러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도 주변의 독립국가연합(CIS) 5개국과 합동으로 상설교류 협의체인 대테러 센터를 추진 중이며 중아아시아 3개국 및 중국이 참여하는 대테러 센터를 추진하고 있다.

현대의 국제 테러리즘이 본질적으로 국제적 또는 초국가적 성격을 갖거나 특정국가의 수출적 테러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국제적인 협력이 중요시된다. 국제협력이 요구되는 분야는 1) 테러활동 및 테러활동 지원을 불법화하는 국제조약체결, 2) 테러범의 입국금지 및 범인인도조약, 3) 정보교류, 4) 대테러 전문요원의 교환 및 입국편의 제공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국제협력의 범위는 범세계적, 지역적 수준, 직접적인 관계국 간의 수준 등 다원적이 될 수 있을 것이다.⁹¹⁾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국은 아세안지역포럼(ARF)에 ‘아시아 대테러센터’의 설립을 강력히 제의하고 현재 진행 중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 참여국들에게 ‘동아시아 대테러센터’설립을 제안하여 적극적으로 대테러 정보를 수집하고 테러 근절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한국은 9.11과 같은 상황발상에 대비하여 국제 대테러 연대를 강화하여

91) 이대성(2007), 전개논문, p.404.

야 할 것이다. 국제 테러를 퇴치하기 위한 인터폴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강화는 물론 다국 간 국제수사와 정보교환을 긴밀히 할 수 있는 국제 정보 교류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9.11 직후 독일이 미국에 협력하여 독자적 테러 관련 용의자들을 적시에 검거 및 수사하였던 것처럼 유사시 우리도 이처럼 긴밀한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평소 각국들과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정보 교류 협력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유사시엔 공식, 비공식을 막론하고 긴밀히 협조해야 하기 때문에 비공식 통로의 유용성을 고려하여 공식적인 정부기관의 협력체제뿐만 아니라 NGO를 포함한 민간교류 협력체제의 능력도 강화토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2001년 9.11 테러 당시 19명의 테러리스트들에게 102분간 영공을 내어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미국은 그 결과로 2,970여 명의 무고한 생명과 약 2,000억 달러에 이르는 재산상의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미국의 ‘9.11테러 진상위원회’가 밝힌 테러의 원인은 1) 항공기 자체를 무기화하리라고 예상치 못한 ‘상상력의 결핍’, 2) 각 급 기관 간 정보 공유 미흡 및 정보 통합관리 능력부족, 3) 고위층에서부터 일선 근무자에 이르는 총체적인 대테러 마인드의 부족 등을 고려할 때 정보의 공유는 너무도 중요하다.

향후의 한국이 직면할 위기의 하나로 테러리즘과 초국가적 범죄에 의한 국가체제 파탄과 기반시설의 붕괴로 인한 와해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최근의 국제테러 양상은 전쟁수준의 가공할 파괴력을 가지면서 각국은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차원에서 총력대응 체제를 갖추기 위해 대테러 관련 법규를 보완하고 전담기구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우리의 대테러 부대가 양호한 수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협의 규모와 성격에 비교하면 이 작고 부분적인 능력만으로는 너무도 미흡하다. 미 9.11테러에서 보았듯이 향후의 테러는 단순한 사회범죄나 폭력 행위라기보다는 전쟁적 성격에 가깝다. 테러와의 싸움은 흔히 ‘잔디 연병장에서 뛰는 벼룩잡기’에 비유된다. 국가의 통합적 노력과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대테러작전조차도 쉽게 성공할 수 없다.

테러의 예방이나 피해의 최소화 그리고 신속한 사후처리 등 모든 단계에서 정부차원에서 국가와 관련된 모든 역량을 입체적, 통합적, 집중적으

로 활용하고 온 국민이 스스로의 불편을 인내하고 희생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범국민적 노력이 병행하지 않으면 대테러정책의 수행과 성공은 기대할 수 없다. 체계적 법제도와 실효성 있는 대테러리즘 활동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대책이 요구된다.

첫째,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테러방지법은 이미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듯하다. 테러방지법 제정은 9.11 직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요구이기도 하다. 법치주의에 입각한 대테러행정, 즉 테러의 법적 규제에 대한 합법성, 투명성,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제적인 반테러 입법 추세에 적극 부응하는 차원에서 볼 때 우리나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종합적 테러방지법 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정보는 이제 폐기되었던 ‘테러 방지법’을 재검토하고 내실 있고 완벽한 체제를 갖추기를 기대해 본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보류된 후 2003년 자동 폐기된 테러방지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여 테러와의 전쟁을 위한 법적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대테러리즘 통합 조정기구의 설치이다. 현재의 대테러 업무가 각 부처별로 구분되어 있을 뿐, 통합적 대응 기구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현재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테러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조정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조정기구는 각 단위 조직들 간의 협력관계의 불일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직기구로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테러경보 체계의 효율적 운영과 뉴테러리즘에 대비한 첨단장비의 확보이다. 이미 제정된 대테러 경보시스템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적용되어 테러경보의 홍보가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테러리즘으로부터 개인과 국가를 보호하려는 정확한 실체임을 알리고 이에 대한 사전 대비책을 강구하자는 취지를 충분히 홍보해야 할 것이다. 차제에 테러와 관련된 정책의 규모를 적절히 확충하고 조직의 편성과 장비도 현대화하여 운용체제도 증강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국제협력체제 강화 및 정보역량의 강화이다. 테러리즘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는 아무 국가도 없다. 140개국의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테러

에 시달리는 현 상황에서 우리는 강력하고 획기적인 국제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의 아프가니스탄 테러사건을 통해 경험한 바와 같이 우리는 정보교류는 물론 외국채널의 다변화와 문화교류 등을 재점검해야 할 것이다.

이제 대규모 무차별 대량살상을 구사하는 국제테러는 탈냉전시대의 새로운 전쟁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모든 국가들은 테러단체에 대한 예산, 인원, 기술, 정보 등의 지원을 금지시키고 테러단체에 대한 예산, 인원, 기술, 정보 등의 지원을 금지시키고 테러단체에 대한 국제적 수준의 정보공유를 향상시키며, 테러발생 시의 책임규명과 보복대응을 위한 국제적 기준을 마련하고, 일련의 테러방지 국제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⁹²⁾



92) 이태운(2010), 전계서, pp.423-430.

제 5 장 결 론

21세기는 군사적으로 비록 국가기반의 점령전쟁 가능성은 희박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정체성에 근거한 분쟁과 전쟁의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탈냉전 시기의 국제 테러리즘이 변화에 따른 21세기 전쟁 양상은 핵 및 사이버전쟁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즉 전쟁은 자동화와 소규모 전사 집단에 의한 초국제테러리즘이 국가 전체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우려에 처해 있다.

본 논문은 정치목적 차원의 테러리즘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 원인과 목적 및 유형을 파악하였으며 테러리즘의 사상적 배경을 개인, 국가 차원에서 고찰하였다. 테러 수단을 살펴봄으로서 탈냉전기의 국제적 분위기에 테러가 어떻게 발생하는가를 연구하였다. 또한 이슬람테러의 역사적 배경과 유형을 살펴보았는데 그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중동테러리즘은 이슬람 원리주의에서 정치·이념적 측면을 강조하는 세력들이 영향을 받아 그 성향이 급진적이고 과격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그리고 과거 및 현재 중동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미국과 서방세계가 이슬람세계를 위협하는 행위로 인식함에 따라 중동테러리즘을 구성하는 구성요원들이 자발적이고 자체적인 증식성향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자체 증식성은 이슬람·아랍이라는 공통분모만 있다면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테러를 자행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와 조직의 전산망 체계를 갖추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와 조직의 전산망은 중동테러리즘이 세계를 무대로 활동할 수 있는 광역성을 확보하게 하였다.

중동테러리즘의 특성은 중동이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중동은 아랍인과 유대인의 갈등, 쿠르드민족의 자치권 문제와 인종, 종파, 정치체제 등 일상적인 테러리즘의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과 유럽은 이슬람을 테러리즘의 상징으로 여론화하고 있다. 중동테러리즘은 1990년 이전까지는 크게 팔레스타인문제, 소수민족 분리문제, 세속정부에 대한 일부 이슬람 원리주의 단체들의 반정부 활동

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또한, 북한의 테러 사례를 위주로 유형 및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주변 강대국의 대테러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대테러 정책의 문제점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대테러 발전방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테러에 대응하는 위기관리 체제를 제도화하여야 한다. 테러위기를 인식-평가-대안개발-선택-집행-평가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인원, 장비, 조직 등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은 테러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외교적 대응에 그쳐 왔으나 최근 국제적 안보환경이 테러에 집중, 탈 냉전이전의 정치 및 군사적 부문 위주의 전통적 안보 개념에서 탈피하여 비정치적, 비군사적 부문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 개념으로 변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으므로 과거의 소극적인 대처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대테러 정책을 주관하는 국가 정보원에서 새로운 테러에 대응한 테러방지법을 입법예고 한 것은 우리 정부도 테러를 국가차원의 중대한 위기로 간주하고 있는 실례의 하나인 것이다.

둘째로, 테러에 대한 조직적인 연구와 전문가의 양성이 시급하다. 한국적 상황을 적합하게 구성하여 교리화하고 또한 연구된 교리를 이론과 연결시켜 논리화, 계열화시켜야 한다. 또한 재래식 정규전 개념이 아닌 각군의 특성에 맞는 테러대응 전술을 개발하고 테러에는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즉 테러에 즉각 대처하거나 해결책을 계획하고 협상과 구출작전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문요원을 양성해야 한다.

셋째로,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적, 국민적 협력의 기반구축이 필요하다. 전후방이 따로 없는 현대전의 특성상 테러와 같은 위기가 발생시 군만으로는 성공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없다. 책임지역 내 모든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평소에도 상황조치 훈련을 강화하고 장래의 불특정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안보관 정립과 함께 민관군의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여야 한다.

넷째로,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확고한 정치적 의지가 있어야 한

다. 2002년 10월 모스크바에서 극장관객을 인질로 한 체첸반군의 테러에 대응하여 러시아 정부는 국제사회로부터 인권무시라는 악평을 감수하면서도 강력한 진압작전을 수행함으로써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었듯이 일관성 있는 대테러 정책수립과 집행으로 정부의 정치적 의지를 보여야만 한다. 테러리스트들이 노리는 목적중의 하나가 바로 인명살상 위협을 통해서 정부의 무력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노출시켜 정부에 대한 믿음과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사회적 혼란을 조성시키는데 있음은 물론이다.

말로는 테러와의 전쟁, 강경대응을 외치고 행동으로 실천의지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국민으로부터 결코 신뢰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향후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테러리즘 현상은 그 범위와 능력면에서 점점 더 확대될 것이다. 더욱 힘을 갖추고 폭력적이 되는 테러리스트들은 국제사회의 생활과 제도에 위협을 가할 것이다. 그들이 사용하는 무기에는 재래무기 정보전 핵 및 화생방 무기도 포함될 것이며, 향후 국제사회의 테러리즘은 독립적 또는 국가적지원을 받아 더욱 격렬한 폭력이 구사될 것이며 선전과 정치적 활용면에서 더욱 정교해 질 것이다.

테러는 오늘 날 인류사회가 해결해야 할 큰 과제임에 틀림없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막기위한 법적, 정책적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지난번 미국의 대형 테러사건을 접하게 되면서 앞으로의 테러는 더욱 거대화되고 공격적이며 잔인해지리라는 것이 예견되고 있다. 이제 테러는 몇몇 국가의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인류사회 전체의 문제임을 알아야 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구성원이 합의된 규칙을 만들어내야 하고 이를 준수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1) 단행본

- 국가정보원(2003), 『국가정보보호백서2002』, 서울:국가정보원
- _____ (2003), 『월간 테러정세』 5월호, 서울:국정원
- 권문술·민만식(1985), 『전환기의 라틴아메리카』, 서울:탐구당
- 김두현(2004), 『현대 테러리즘론』, 서울:백산출판사
- 김열수(2005), 『21세기 국가위기관리체제론』, 서울:오름
- 김응수(2011), 『21세기 북한의 이해』, 경기:북코리아
- _____ (2012), 『글로벌 테러리즘』, 서울:한울
- 남궁 곤(2005), 『네오콘프로젝트-미국 신보수주의의 이념과 실천』, 서울:사회평론
- 로레타 나폴레오니(2004), 『모던 지하드:테러, 그 보이지 않는 경제』, 이종인(역), 서울:시대의 창
- 박준석(2006), 『뉴테러리즘개론』, 서울:백산출판사
- 세종연구소(2001), 『탈냉전·세계화 시대의 국가 전략』, 서울:세종연구소
- 신일철(1981), 『프랑크푸르트학파』, 서울:청람문화사
- 신의기(2002), 『테러리즘 관련법제 정비방안』, 서울: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여영무(2006), 『국제 테러리즘 연구』, 서울:한국해양전략연구소
- 유현석(2003), 『국제정세의 이해-9·11테러 이후 지구촌의 어젠다와 국제관계』, 파주:한울아카데미
- 윤우주(2002), 『한국의 대테러 대비태세』,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 이창용(2007), 『뉴테러리즘과 국가위기관리』, 서울:도서출판영문화사
- 이춘근(2003), 『테러전쟁 시대의 국제정세』, 서울:모시는 사람들
- 이태운(2004), 『21세기 국제테러리즘』, 서울:도서출판 모시는 사람들
- _____ (2010), 『현대 테러리즘과 국제정치』, 경기:한국학술정보
- 이현경(2002), 『미국의 대·반테러 세계전략과 대북전략』, 서울:통일연구원
- 정은숙(2001), 『불량국가와 대량살상무기 확산』, 서울:세종정책연구소,

조병갑(2004), 『테러와 전쟁』, 서울:북코리아
 최정섭(1982), 『프란츠 파농연구』, 서울:한마당
 최진태(2006), 『테러리즘의 이론과 실제』, 서울:대영문화사
 하경근(1983), 『제3세계 정치론』, 경기:한길사
 하영식(2001), 『지구촌시대의 국제테러,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서울:
 한국문화사
 홍순남(2003), 『뉴욕에서 바그다드까지』, 서울:인간과 자연사

2) 연구 논문 / 간행물

곽병현(2006), 『테러활동 및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동국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국방부(2001), “북한의 테러유형과 역사적 교훈”, 『군사』 제44호, 군사편찬연구소, pp.1-44
 김성일(2009), 『효율적 테러대응을 위한 대테러정책 발전방안연구』, 국제문화대학원대 정치학 석사학위논문
 김수민·윤황(2009), “북한정권과 중동 테러단체의 테러 유형과 특징”, 『한국동북아논총』 제 53집, 한국동북아학회, pp.57-85
 김태준(2002), “북한의 테러와 테러리즘”, 『국방연구』 제45권, 국방대학교, pp.157-196
 박기범·강민완·진용태(2006), “이슬람 원리주의를 통해 본 중동지역테러리즘의 이해”, 『경호경비연구』 제12호, 한국경호학회, pp.145-179
 박현욱(2004), “김정일 정권의 국가전략과 군사정책”, 『군사논단』 제 38호, 한국군사학회, pp.128-151
 신동련(2009), “국제 테러리즘과 문화적 갈등”, 『오토피아』 제20권,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pp.89-114
 윤우주(2002), “한국의 대테러 대비태세와 발전방향”, 『행정안전부간행물』 제60호, 행정안전부, pp.25-49
 윤태영(2006), “9·11테러 이후 미국의 테러리즘”, 『세계지역연구논총』

- 제26집 3호, 한국세계지역학회, pp.439-465
- 이대성(2007), “한국의 테러가능성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독사회과학논총』 제17권 제1호, 한독사회과학회, pp.381-411
- 이동윤(2009), “국내 정치와 지역 거버넌스”, 『국제정치논총』 제49집 1호, 한국국제정치학회, pp.329-351
- 이상필(2002), “대테러 위기관리체계의 보완점 모색”, 『입법정보』 제73호, 국회, pp.1-30
- 이상현(2001), “MD와 자살테러:비대칭 전쟁과 21세기 안보환경”, 『정세와 정책』 제63호, 세종연구소, pp.1-39.
- 이원창(2003), “한국의 테러대비 방향”, 『합참 제20호』, 합참, pp.136-149
- 이종민(2003), “세계적 대테러전과 해군의 대비방향 연구”, 『해군 군사학술연구』, 해군본부, pp.1-81.
- 인남식(2011), “최근 이슬람 테러리즘 동향과 미국의 대테러 정책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원, pp.1-11
- 전봉근(2011), “2011년 북한정세 전망과 새로운 대북전략 모색”, 『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원, pp. 1-20.
- 조상현(2009), “중동지역 분쟁의 원인과 중동 테러리즘 생성 배경에 관한 연구”, 서울벤처정보대학원 정치학박사학위 논문
- 조성권(2001), “21세기 새로운 테러리즘과 한국의 대응방안”, 『통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pp.40-55
- 차두현(2008), “한국의 테러리즘 대응방안”, 『국제정치논총』 제4집, 한국국제정치학회, pp.175-194
- 최춘송(2003), “한국의 초국가적 테러리즘 대응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교 정치학 석사논문
- 최재훈(2006), “중동테러리즘과 급진 이슬람 원리주의의 역학관계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국제정치학 박사논문
- 최진태(2002), “테러리즘의 역사적 기원과 변천”, 『국방연구』 제45권 제1호,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pp.11-37

2. 국외문헌

- Alarappa, Muthiah(2002), *Asia Security Order: Instrumental and Normative Features*. Standford: standford University Press.
- Allision, Grahm(2004), *Nuclear Terrorism*. New York: Henry Holt books.
- Azariadis, C., and A. Drazen.(1990), *Threshold externalities in economic development*.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5 (2)
- Barclay, C. N.(2007), *New Warfare*. New York: Kessinger Publishing, LLC
- Barker, D., and C. J. Cameron(2000), *Spirit of capitalism: Religious doctrine of values and economic attitude constructs*. Political Behavior 22 (1): 1-27. 20 Urban Affairs Review
- Barro, R. J.(2001), *Human capital and growth*.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91 (2)
- Barro, R. J., and R. M. McCleary.(2003), *Religions and economic growth across count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8 (5)
- Barron, J. M., D. A. Black, and M. A. Loewenstein(1987), *Employer size: The implications for search, training, capital investment, starting wages, and wage growth*. Journal of Labor Economics 5 (1)
- Buck, George(2002), *Preparing for Terrorism: An Emergencu Services Guide*. London: Delmar Publishers.
- Cristopher, Dobson., and Ronald. Payne(1982), *The terrorist*, New York : Facts on File, inc
- EUROPA(1991),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1991*, 37th ed., London : Europa Publications Ltd
- Fanin, Frantrz(1965), *The Wretched of the Earth*, New York : Grove Press

- Heymann, B. Philip(2003), *Terrorism, Freedom and Security: Winning without War*. Cambridge MA: MIT Press.
- Hirschmann, Kai(2003), *Terrorismus. Hamburg*: Europäische Verlagsanstalt
- Katz, Barry(1982), Herbert Marcuse and Art of Liberation, The Economist
- Laqueur, Walter(2001), *A History of Terrorism*.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Publisher
- Martin, Gus(2008), *Essentials of Terrorism: Concepts and Controversies*. Sage Publication
- Motley, James. Berry(1981), International Terrorism : New Mode of Warfare, International Security Review, No.19
- Oakley, Robert. B(1985), Terrorism : Overview and Development, US Department of State Bulletin, Vol. 85, No. 2104, November
- Tucker, B. Jonathan(ed.)(2003) *Toxic Terror: Assessing Terrorist Use of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Cambridge, MA: MIT Press

ABSTRACT

A Study on Terrorism in the Middle East and the Northeast Asia

-Focused on cases of Islam and the North Korea-

Yoon, Jin Kyu

Major in International Security

Dept. of International Security and Strategy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Hansung University

Since the terrorist attacks on September 11, 2001, interest in terrorism has grown and it leads to many following studies on background of terrorism and counter-terror policies of the world's great powers. Purpose of this article is, based on such precedent studies, to suggest future direction for the Republic of Korea's counter-terror policy. The main idea can be summarized in three dimensions as follows:

First, the true nature of terrorism can be described in terms of international politics. Therefore, definition of international terrorism and/or transnational terrorism will be determined in this article.

Second, interest in Islamic regions and the Middle East, which are considered as breeding grounds of the September 11 terrorist attacks, has soured. Accordingly, a part of this article is assigned

to study historical background of terrorism in these regions and figure out its feature.

Third, the most grave threat against ROK is the North Korea, as we already have witnessed in both cases of sinking of the *Choenan*, the ROK Navy patrol ship, and bombardment of Yeonpyeong in 2010. This article first examined means and types of North Korean threat, then suggest future counter-measures for ROK by studying other cases of great powers.

In order to reach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1) it will first investigate general concept of terrorism and what lies behind it, then analyze aspects of terrorism within the Middle East and the Northeast Asia. Based on these, it will study great powers' measure for counter-terrorism, which will lead to reflection on problems and remedies for the current ROK counter-terror policies.

First of all, a crisis management system designed to deal with terrorism needs to be systemized. That system should embody 'recognition - evaluation - alternative development - selection - implementation - feedback' cycle on crisis of terrorism. ROK government has so far focused on diplomatic measures in countering terrorism. However, recent trend in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has shifted its focus from traditional concept of security, mainly emphasizing high politics such as politics and military, to comprehensive security, including non-military and non-political areas. It means that the ROK government has to change its stance from passive one to active response.

Secondly, ROK government needs to set out for organizational study of terrorism and training of experts on dealing with terrorism. Based on consideration of Korean situation, a systemized doctrine should be developed. Then there is a need for linkage

between the doctrine and general theories in order for rationalization and systemization. Furthermore, various tactics designed for each forces are necessary, instead of traditional concept of regular warfare. It leads to necessity of terrorist experts for rapid response on terrorism. Confronted with terrorist threat, they would be expected to come up with a solution, perform a negotiation, and launch a rescue operation.

Thirdly, ROK still lacks foundation for national cooperation to counter terrorism. A striking feature of modern warfare is equivocal distinction between the battle line and the rear area. Therefore, an effort of military is not enough to achieve successful results in operations. Under close cooperation with relevant organizations within its responsible areas, the military should strengthen situational training exercise in peacetime. Along with efforts to establish correct security perception among Korean people, the ROK government needs to found an integrated defense system between its civil-governmental-military sectors.

Lastly, state-of-the-art equipments are needed to counter terrorist means which have advanced in line with technology development. For instance, the ROK government should secure anti-bio warfare equipment in case of anthrax terrorism which has been a nightmare for world's countries since September 11 terrorists attacks. Add to this,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to share their intelligence by enhanc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which is essential for successful repression of terrorists attempts on a global basis.

【Keywords】 Terrorism, Counter-terror policy